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10 2019

VOL. 280

haninnewsinni@gmail.com

since 1996 한인뉴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THE 6TH KOREAN ASSOCIATION OF CULTURE & ARTS FESTIVAL

2019 문예총 종합 예술제

2019.10.19 ~10.25

개막식·오프닝공연 2019년 10월 19일 (토) 2시

전 시 10월 19(토)~25일 (금)

공 연 10월 19(토)~20일 (일)

장 소 롯데쇼핑 에비뉴

LOTTE SHOPPING AVENUE, MAIN ATRIUM

부대행사

"1318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10월 20일 일)

릴레이 미니 콘서트

"문화있는 DAY" 10월 21(월)~ 25(금)

1부 : 12:00~13: 00 / 2부 : 18:00 ~19:00

체험행사

10.20.일 : 샌드아트체험

10.21 월 :부채그림그리기 (12:00~14:00)

10.19~25(토~금) : 사과나무열매(사랑메세지)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문예총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MAKE IT YOURS

go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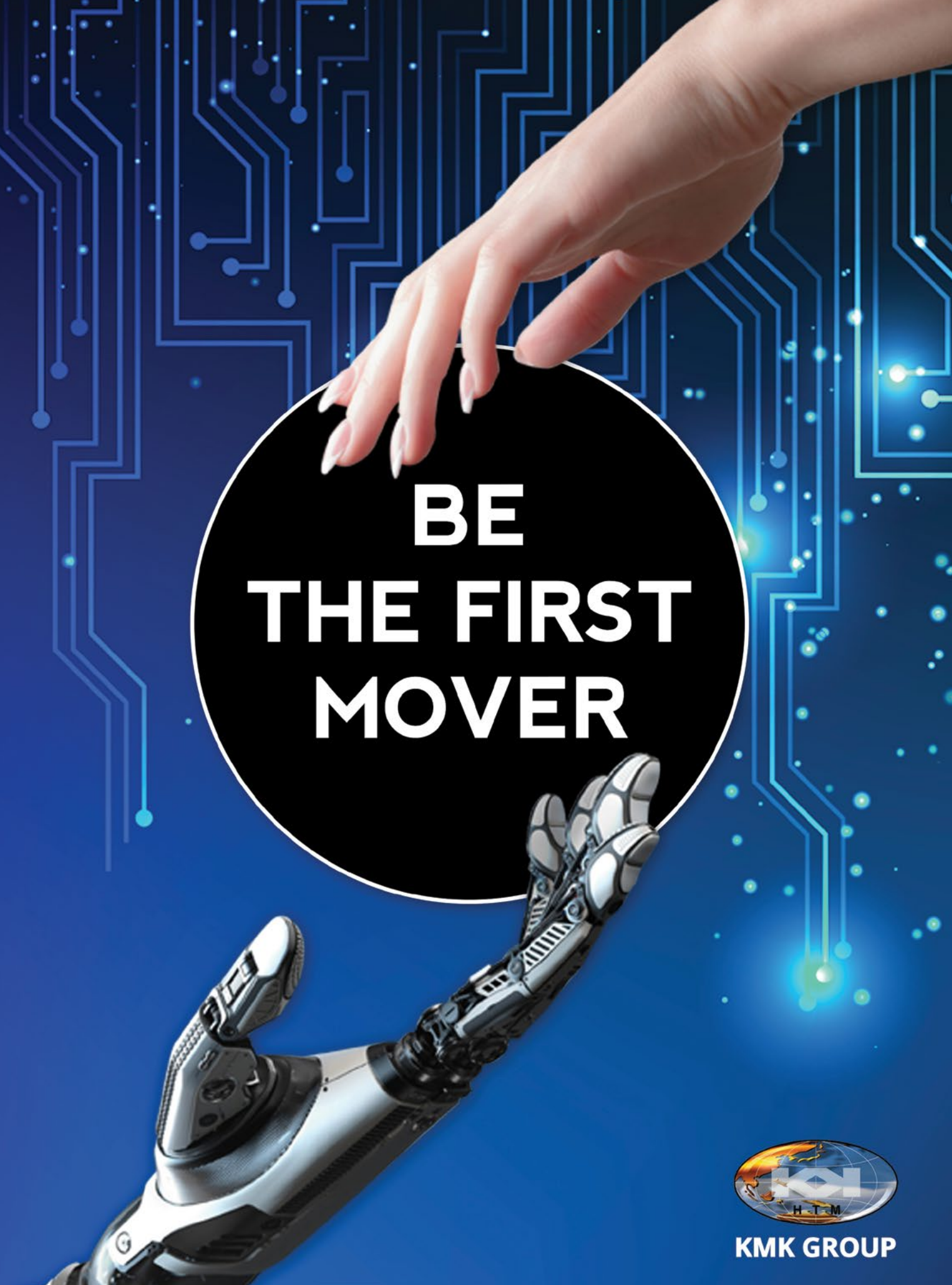
당신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
파워 슬라이딩 도어에서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코스모 스위트에서
특별한 아늑함을 느껴보세요.

KOREAN AIR SKY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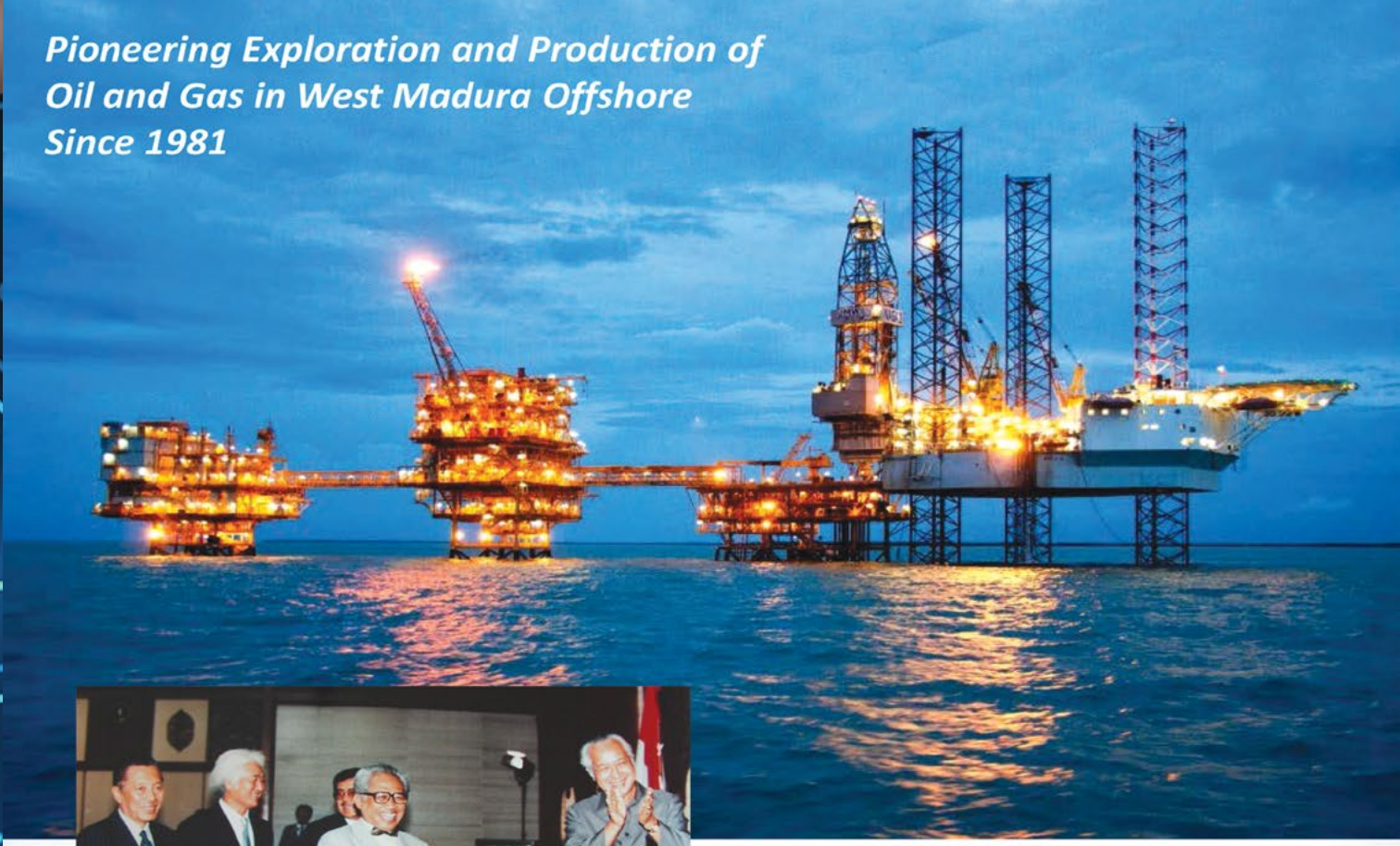
자카르타 ⇄ 서울 매일 운항
덴파사르(발리) ⇄ 서울 매일 운항

50 years

GoKorean.KoreanAir.com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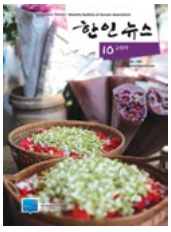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2019년 9월 21일 , 독립운동가 장윤원의 묘에 뿌리기위해
준비한 꽃잎. Tanah Kusir (따나 꾸시르/ 국영공동묘지)

contents

2019. 10. 통권 280호

07 호기심 3 <편집국>
10 논설위원 칼럼-한국산림개발조사단과 수까르노 <김문환>
14 신성철 칼럼-한국기업의 인니개척첨병 '마인어과'
16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이영미>
20 그는 누구? - 한인회 손한평 수석부회장 <편집국>
23 다녀왔습니다~
24 이해창 경제칼럼-화폐전쟁의 서막
26 시 - 등대 <김준규>
27 IKCS & IKFA MOU 체결
28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현대사] 24
32 월간 뉴스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36 자카르타 맛집 탐방 - DIE STUBE <주윤지>
38 10월의 행복에세이 - 프라모라 공주 <하연수>
41 제 100회 전국체전 재인니선수단 출정식
42 발전하는 의료서비스, 그렇지만 더 가야할 길 <전주영>
44 나 바 수 <민선희>
48 JIKS 소식
49 족자르타에서 첫선 보인 K-pop ACADEMY
50 날아라 라플레시아 <이정원>
54 건강칼럼 <재인니대한체육회>
57 창원시, 한인회 방문
59 A STAR IS BORN <편집국>
60 상속법 278
62 박물관헤리티지 <이수진>
64 제 6회 종합예술제
65 신간안내 - 햇살의 말씀
66 이은주 시인 인터뷰 <김주명>
67 Pancoran 사람들 No.10
70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10 2019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수진, 이영미 **표지** 조현영(자카르타 경제신문)**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SIPA(Solo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행사
2019년 9월 5일

Teman Korea Nang Jawa (자카르타에서 수마트라까지 한국 홍보 버스를 타고 순회한 종합공공외교 프로젝트)에서 Solo까지 동행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인지도가 높은 **장한솔** (26세) 유튜버를 SNS로 만났다.

외국인이 자와어로 양국의 문화를 섞어가며 설명한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투리쓰는 외국인들을 더 친근해 하잖아요~

-유튜버가 된 이유는?

저는 유치원, 초. 중. 고를 동부 자바에 말랑에서 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덕에 일단 인니어가 편합니다. 싱가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만의 차별된 경험으로 가산점을 받아보자.. 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업이 돼 버렸습니다.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주로 먹방,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에서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는다든지, 한국뉴스 중 인도네시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 등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 기획사 YG 소속 연예인들의 잇단 검찰 수사 소식에 인도네시아 팬들이 한국정부를 좋지 않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 위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장한솔(26세) 유튜버

-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은?

한국인이 이미지가 좋습니다. 한류 덕이죠. 제가 외국인인데 자와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친근감을 느끼나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넓은 땅덩어리,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가 곳곳에 숨어 있는 이곳에서 보낸 학창시절의 남다른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 다니면서 외국인의 서러움 같은 것은 없었나요?

오히려 잘 대해주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학교에 유일한 외국인이 학생대표를 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선생님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잘 지냈어요.

- 한국에서 회사원으로 지내기는 어떠하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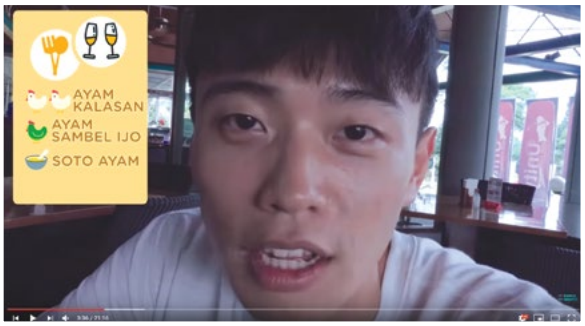
외국계 회사를 다녀서인지 이것이 한국의 직장문화구나! 하며 적응을 어려워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선후배, 나이, 형 동생 등으로 위 아래가 있다는 것에서 자유롭진 못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최근 1년 간 구독자 수가 갑자기 늘어서 컨텐츠의 질적향상을 위해 계속 고민하며 집중하려고 합니다.

-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속의 한국인 학생들에게 한 말씀

안정적인 직업은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거기에 또 다른 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PT. DONG SAN HOLDINGS

SMART하고 Speed한 제품생산으로 Delivery 납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재생으로 환경보전에 힘쓰고

인도네시아인들과 함께 하는 현지화로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논설위원 칼럼》
<베니장군과 한인사회 #3>

김문환/논설위원

한국산림개발조사단과 수까르노

서부이리안 군사작전이 마무리 되어가던 1962년 중반부터는 수까르노 대통령도 홀가분하게 국정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흥아무역주식회사라는 무역상을 운영하던 재일동포 최계월 사장이 1962년 8월 8일 수까르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인도네시아 첫 방문길에 올랐고, 동년 12월 6일 장경순 농림부 장관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을 예방하여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자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그 후속조치로 1963년 7월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조사를 위한 정부사절단이 꾸려져 자카르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국장급에 불과한 사절단을 수까르노 대통령이 국빈 대접하듯 맞아 들인 것은 서부이리안 민족대표들을 일본에서 보호해주며 그들을 설득하여 결국엔 인도네시아 정부에 편입하도록 유도한 최계월 사장 등 일본정계 거물들의 역할을 수까르노가 보상한 셈이었다. 어떻든 정부 사절단원들인 심종섭(沈鍾燮) 농림부 산림국장(서울농대학장, 학술원회장 역임)가 단장이 되어 농림부 임정과장 김oo, 외무부 경제조사과장 박 영(朴 英,중앙 아프리카대사 역임) 그리고 최 사장 일행이 자까르따를 방문하여 보고르 대통령궁을 찾아 수까르노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었다. 상기 박 영 대사는 훗날 그의 자서전 중 '나의 외교관생활 30년' 편에서 이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나는 1962년에 통상국 경제조사과장에 뒤늦게 보직되었고 외무부에서 제일 나이 많은 과장으로 박문범, 이보형 및 신태황 등 고참 서기관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중략)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호텔인 맘모스 규모의 '호텔 인도네시아' 에 투숙한 후 외무차관 등을 방문하고 2~3일이 되는 날 외무성의 주관으로 다음날 오전 10시에 보고르에 있는 대통령 별궁에 도착하여 긴장된 상태에서 접견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정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산림개발 조사단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외무성 업무처리 등 모든 일이 전광석화와 같이 진행

되었으니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에 잠깐 대기하고 있을 때 비서실 의관이 찾아와 현재 소련대사께서 대통령을 만나고 계시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친절히 전해 왔다. 약 10분 후 대통령 집무실에 안내되는 순간 수까르노 대통령은 공식의전 절차를 생략하고 최사장을 다정한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포옹하였고 동반한 우리들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다. 이와 같이 과분한 환영인사를 끝내자 대통령은 외무성과 농림성에 특별지시를 해놓았으니 관계부서를 방문함은 물론 산림현장까지 들러보고 산림개발에 대한 외교의정서를 작성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의전문서는 외무차관과 합의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첨언하였다. 그리고 제일 좋은 관광 명승지인 발리섬을 관광할 것을 권해 주셨다. 우리 일행은 그때부터 최계월 사장의 위력을 알았으며 인도네시아 방문목적은 성공리에 끝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이상과 같은 내용을 외무부와 농림부에 즉시 보고 하였다. 우리는 귀국예정일을 일주일 연장해가면서 산림개발 협정초안을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외무차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결국은 산림개발 협정조인에 성공하였다.(중략)

이와 관련하여 이또츄(伊藤忠) 및 미쓰이(三井)등 일본 대기업체로부터의 투자 유혹이 최사장에게 수 차례 있었지만 최사장은 민족사업으로 출발하여 조국의 산업개발에 힘이 되겠다는 초지를 관철할 것을 때때로 나에게 다짐하였으며 최사장에게 5년 이상 누적된 개발사채는 더 이상 쉽게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최사장은 채권자들로부터 국제사기꾼이라는 원성과 질책을 듣게 되었다는 옛 기억을 잊을 수 없다.(중략)

1963년 한국산림조사단이 보고르 대통령궁으로 수까르노 대통령을 예방하여 환대를 받고 있다. 수까르노 왼쪽이 외무부 박영 과장, 오른쪽이 심종섭 단장, 최계월 사장, 뒷편 왼쪽이 농림부 임정과장, 수까르노 비서실장 익산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거행된 베니 소령의 결혼식 피로연

거절당한 대통령의 요청

서부 이리안 해방운동이라는 큰 짐을 내려놓자 수까르노 대통령은 또 다른 도박을 시작하였다. 그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압둘 라흐만(Tengku Abdul Rahman) 수상의 '말레이지아 연방안'에 대해 수까르노는 공세적인 대응으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서부이리안 해방운동에 고무된 수까르노는 내친 김에 이 지역의 맹주자리를 놓고 압둘 라흐만 수상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대결정책은 필연적으로 군의 개입이 초래되니 이를 계기로 군의 우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한 수까르노는 1962년 6월 23일 자로 당시 군의 최고지휘관인 나수띠온(Nasution)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의 직책에서 끌어내려 국군참모장 및 국방담당 부총리라는 허울좋은 직책만 부여하여 실권을 박탈하였고, 대신 그 자리에 아흐맛 야니(Achmad Yani) 소장을 임명하여 친정체재를 다지고 있었다. 이 인사조치를 계기로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왔던 나수띠온 장군의 인맥 및 추종자들은 추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철저한 반공정책도 퇴색되어 공산당(PKI)이 본격적으로 정치무대로 등장하는 전기가 된다. 즉 야니 장군은 취임 초기에는 수까르노의 공산당 유화정책 노선을 충실히 따라 공산당의 정치적 활동을 해당 지역 내에서 금지시켰던 남부 술라웨시, 남부 깔리만탄, 동부 자바 등 반공 성향의 지역사령관(Pangdam)들을 전격 경질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부이리안 임무가 종료된 후 베니는 자카르타 근교 찌잔뚱(Cijantung)에 있는 특전사 본부로 복귀하였다. 오늘날의 특전사(KOPASSUS) 전신인 당시의 RPKAD의 부대규모는 2개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부대장은 뭉(Moeng) 대령이었고 참모장엔 위조요 수요노(Widjojo Soejono) 중령, 교육대장엔 사르워 에디 위보워(Sarwo Edhie Wibowo) 중령 그리고 제1대대장에 베니 소령, 제2대대장에 꼬딤(Kodim) 소령 등의 지휘부로 짜여 있었다. 1964년 중반 어느 날 오후 베니는 테니스 운동을 마치고 부대로 귀임하는 도중 탑승한 짚차 맞은 편에서 사복을 한 일단의 무리들이 자대 소속의 트럭에 실려 쏜살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감지하였다. 제1대대 소속의 직속부하는 아닌 게 분명하니, 그렇다면 제2대대 소속의 요원들이 아니겠는가? 부대정문 위병소에 도착하자마자 위병을 다그쳤다. "무슨 일이야? 우리 부대원들 맞지? 어디로 가는 거야?" "예, 대통령 경호대 병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쌍방간에 충돌이 벌어져 우리측에

사상자가 발생하여 보복하러 간다 하였습니다." 베니는 테니스복 차림 그대로 핸들을 꺾어 질주하기 시작했다. 경호대 병영에 도착하니 실제로 특전사 대원들이 부대주위를 완전 포위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바주카포까지 설치하여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베니 소령은 경호대 정문으로 홀로 접근하였다. 적군(?)의 지휘관이 접근하는데 그대로 응사 받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그 위병은 베니 장군의 얼굴을 잘 알고 있는 터라 경례를 붙이고 정중히 대했다. 이어 나타난 부대장은 다름아닌 마라우께(Merauke) 공수작전 시 베니의 직속부하였으며 솔로(Solo) 출신의 동향인이었다. "사미누(Saminu) 소령,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더 이상의 불상사는 막아야 하니 귀관의 부대원들을 일체 밖으로 못나오도록 철저히 통제해주고 나는 우리 부대원들을 조속히 철수시키도록 하겠소." 단신으로 영내로 들어갔으니 혹시 무슨 불상사가 벌어지면 그대로 발포할 태세였던 특전사 요원들은 무사히 걸어 나오는 베니 소령을 보고 안도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베니 소령은 경호연대장 사부르(Sabur) 대령, 대대장 사미누 소령과 같이 헌병사령부에 자진 출두해 사건경위를 진술하였다. 국군 최고 정예부대 간의 충돌로 희생자까지 발생하였으니 대통령에게도 보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베니는 곧 대통령 궁으로 들어오라는 수까르노의 부름을 받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통령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침묵을 지킨 후 말문을 열었다. "베니, 어느 국가이든지 정예부대가 있는 법이오. 그 부대는 국가를 지키는 일 못지않게 국가원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요. 베니, 당신이 우리 경호부대의 식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오." 예상했던 질책은 한마디도 없이 의외의 말씀만 계속 이어나갔다. 여태까지 야전에서 특공대 임무만을 수행해 왔던 베니의 입장에선 완전히 이질적인 임무를 맡으리라곤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는 터였다. 침을 꿀꺽 삼킨 후 베니는 침묵을 깼다. "각하, 저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를…." 대통령이 중간에 말을 끊었다. "아니, 경호대는 진정한 군인이 아니란 말이요?" 라고 언성을 높였다. "각하, 그게 아니고 저는 연대장 정도의 야전지휘관을 먼저 해본 다음에……" "아, 그렇군. 자네는 국가의 영웅이란 말이지. 최고 무공훈장까지 움켜지고 있으니 멋있게 야전지휘관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지? 음…, 알았네!" 빈정대는 듯 하면서 경호대 얘기는 들어가는 듯 하더니 대통령의 표정이 또 한번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듯 목소리에 낮은 톤을 깔았다. "베니, 내 진심인데, 내 딸을 국가의 영웅과 혼인시키고 싶네. 자네 같은 영웅 말이야." 수까르노는 그 특유의 화려한 수사어법을 구사하며 은연중에 분위기를 장미 빛으로 도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니는 여동생 마리아(Maria)와 같은 가루다 항공사의 동료 스튜워디스이던 하르띠니(Hartini)와 8년째 사귀고 있는 터였다. 서부 이리안 특공작전 때에도 그녀의 사진을 가슴에 꼭 품고 이번 작전만 끝나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으니 대통령의 두 번째 요청도 들어줄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대통령은 어쩌면 안될 일만 골라서 요청하시는지 이날 만은 베니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곤혹스럽고 혼미스러운 날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날로부터 6개월 후인 1964년 12월 12일, 베니는 지금의 부인인 하르띠니와 결혼식을 올리고 보고르 대통령 궁에서 대통령 주관으로 성대한 피로연을 치르게 된다. 만약 그날의 두 가지 요청을 다 들어 주었다면, 아니 한가지라도 받아 들였다면 베니의 운명, 아니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정만 해도 그 상상의 나래는 한없이 하늘 끝으로 치솟기만 한다.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개척 첨병 '마인어과'

안영호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명예교수 인터뷰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 전체 한인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인뉴스를 비롯한 여러 한인 미디어에 게재합니다. 이 글 주제와 관련해 사진과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제보해주시면,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인사에는 편집을 거친 사료를 전체 분량을 고려해 일부만 사용할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주역인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졸업생들은 초기 원목사업으로 진출한 한국남방개발(코데코)과 인니동화(현 코린도) 등 원목개발회사에 취업해, 전입미답의 원시림에서 무더운 기후와 열대 풍토병과 싸우고, 현지 직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회사와 자신의 삶의 기틀을 마련했다."

안영호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이하 마인어과) 명예교수는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과의 인터뷰에서 현지어의 중요성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최우선은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이었다. 1960~1970년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초창기에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64년 한국외대 마인어과 1회 입학생인 안 교수는 이어 당시 현지에서는 일부 해외에서 유학한 고위급 공무원이나 지식인들이 영어를 사용했지만 일반적인 소통수단은 아니었다. 특히 1967년 집권해 32년간 철권통치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국가통합의 기치 아래 화교들의 중국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강제했던 만큼 인도네시아어라는 첨단무기를 가진 마인어과 졸업생들은 필수요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영호 한국외대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한국외대 마인어과 소개

한국외대 마인어과는 1963년 문교부(현재 교육부) 설립 인가를 받아, 1964년에 인도네시아어과로 출발했다. 1960대 초 당시 우리 정부는 대외관계에 있어 북한이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비동맹중립국 진영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장차 강대국의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일찍이 감지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주자카르타 총영사관을 1966년 12월에 개설했고, 1973년 9월 한-인도네시아 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전인 1964년 인도네시아어과 개설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단독 수교국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자적인 학과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1966년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다.

- 초창기 마인어과 출신들의 활약은

마인어과 출신들은 1968년 '한국 해외 투자 1호' 한국남방개발과 이듬해 진출한 인니동화 산림개발에 취업해 밀림에서 무더위와 풍토병, 향수병과 싸웠다. 1973년 '대한민국 1호 해외공장인 미원인도네시아(현 대상그룹)가 설립됐고, 1964년 학번들이 이 회사에 취업했다. 당시 미원의 판매전략은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는 판매영업전략을 구사했다. 트럭에 미원이 생산한 조미료 제품을 싣고 섬과 산간지역 등 인도네시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활동을 펼쳐,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한 현지 업체인 '사사'와 일본 기업 '아지노모토'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70년대에는 대림산업과 삼환기업 등 건설업체들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1973년에 착공해 1978년 완공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도로인 자카르타와 보고르를 잇는 자고라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동문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 1988년 이후 한국기업 투자가 인도네시아에 쇄도하면서 마인어과 출신도 대거 진출하는데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섬유·봉제와 신발 등 노동집약업체들이 대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고, 1990년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현지에 공장을 가동하는 등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외대뿐만 아니라 부산외대와 영산대 등 인도네시아 관련 학과 출신들이 현지에서 활약을 펼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기업은 석유화학, 금융, 유통, IT, 제약, 한류 관련 화장품과 외식업 등 투자업종이 다양해졌고,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인도네시아어과 졸업생들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 초창기에 진출한 여한종 대사와 부인 장평화 여사에 대해

독립운동가이자 최초 인도네시아 한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윤원 선생의 막내딸 장평화 여사는 한인사회 초기에 한국총영사관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1974년 여한종 대사와 결혼해 2016년 별세할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작고한 여한종 전 파푸아뉴기니 대사는 앞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마인어과 1964년 학번이다.

장윤원 선생은 일본 동경제국대학 상과를 졸업한 뒤 귀국해 은행에서 일하다, 1919년 3·1운동 당시 은행원 직책을 활용해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다가 발각됐다. 일본 경찰의 체포령이 내려지자 만주를 거쳐 베이징으로 도주, 1920년 당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하던 네덜란드령 동인도 총독부 고위관리의 권유로 자카르타에 망명했다. 장윤원 선생은 당시 총독부에서 일본어 담당 수석 고문관으로 일했다. 일제는 1942년 3월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자마자 장 선생을 체포해 형무소에 가뒀다. 장 선생은 1945년 8월 종전으로 출옥한 뒤 재자바 조선인민회 출범을 뒤에서 돕는 등 조선 동포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 마인어과 비전은

마인어과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을 주축으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포함, 3억명에 달하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해양부 지역을 연구하는 학과이다. 지역 연구의 기본이 되는 전공언어의 습득은 물론,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지역학 연구를 병행하고 있어 명실상부 전공 지역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외교 및 정보 분야 등 정부기관과 금융계 언론계 등의 분야에서 동문의 활약이 돋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타과학생들의 마인어과 이중전공자가 크게 늘어, 지원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인어과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글로벌 시각을 갖춘 도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지원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기획 탐방 1. 인도네시아에 뿌리내린 최초의 한국인, 장윤원

글: 이영미

뜻깊은 일정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인도네시아 한인들이 함께 쓰는 한인사가 되길

– 박재한 한인회장

한 단계씩 밟아가며 한인 100년사를 정리해가는 분들을 응원

– 류완수 영사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사람이 되어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조명

–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인도네시아 한국인의 원류를 찾아서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14명으로 구성된 문화탐방팀은 '독립운동 망명객'으로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뿌리를 내린 한국인 장윤원((張潤遠, 1883~1947) 선생의 흔적을 찾고자 기록문화 탐방 길을 나섰다. 오전 8시부터 저녁까지 꼬박 10시간에 걸쳐 장윤원 선생의 묘지, 아트마 자야 대학교, 국방부 청사, 대성당, 살렘바 형무소와 멘뗑 자택의 순서로 문화탐방을 하였다.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의 인도네시아 330회 역사문화탐방으로 진행된 본 탐방은 재인니한인회 박재한 회장과 주인니한국대사관 류완수 영사가 동행해 더욱 힘이 실렸다. 박재한 회장은 "바쁜 일정이지만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9월 20일은 네덜란드총독부 고위관리의 권고로 장윤원 선생이 1920년 9월에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이름)에 정착한 지 99년째 되는 날이라 의미가 남다르다."는 뜻을 밝혔다.

장윤원 선생의 묘지를 가장 먼저 방문한 이유는 고국을 등지고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다 발각되어 쫓겨 인도네시아로 망명을 한 독립투사의 생에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였다.

장윤원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다

문화탐방팀은 장윤원 선생이 묻힌 자카르타 뽄독인다의 따나 쿠시르(Tanah Kusir Cemetery) 묘지부터 방문하였다. 세월의 흔적을 안은 묘비에는 '장윤원'이라는 한자와 일본식으로 발음한 '조준 엔(CHO JUN EN)'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출생지 '서울'이 뚜렷이 새겨진 1.5평 묘지에는 1984년도에 별세한 부인 황항아와 차녀 장방기가 함께 합장되었다.
이 또한 자신의 혈통의 뿌리가 모국에 있음을 알리고 싶은 장윤원 선생의 깊은 뜻이 아닐까.

다음으로 문화탐방팀이 방문한 곳은 장윤원 선생의 차남 장순일 씨가 설립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해 1960년에 설립한 아트마 자야 가톨릭대학교(Atma Jaya Catholic University)였다. 이곳에서 초대 공대학장과 재단 부이사장을 지낸 장순일 씨의 업적을 기리고자 공과대학 건물외벽 석판에 '장순일관(Gedung Paul Cho)'으로 새겼다. 문제는 장순일 씨의 세례명 '파울'과 일본식 발음 '준 이치 조'에서 차용한 'J.P CHO'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식 이름표기를 '장순일관'으로 바꿔 다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 이를 위해 박재한 회장과 류완수 영사가 아트마 자야 대학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아트마 자야 대학교에서 부총장 이하 학교 관계자들과 한국인 유학생 강혜원, 최형윤, 조인정 씨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유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학교가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히며 문화탐방의 이후 일정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아트마에서 정성스레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준 선물 중에는 장순일 교육자가 교황으로 받은 실버메달 훈장을 목에 걸고 부인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이후 문화탐방팀은 1942년 3월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에게 끌려간 장순원 선생과 장남 장남해 씨가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헌병대(현 국방부)를 지나서 자카르타 주청사 발라이 꼬따로 이동했다. 발라이 꼬따 별관(뻔도뽀)은 고려독립청년당원들이 1945년 7월 21일 군사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청년당의 핵심 당원들이 1945년 9월 1일 조선인민회를 결성한다. 이때 장윤원 선생은 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은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을 지운 채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 관광,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외국 대표들과 논의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

자카르타 성 마리아 대성당(Gereja Katedral)에 들른 일행은 차분한 마음으로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자카르타 대성당 역시 장순원 선생과 연관이 있다. 살렘바 형무소 수감 중 출생한 막내딸 장평화가 1974년 한국출신 외교관과 결혼식을 올린 장소다. 늦둥이 딸의 이름을 '평화(Peace)'로 작명할 만큼 형무소에서 장윤원 선생이 얼마나 '평화와 자유'를 염원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마침 성당 안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행은 숙연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지켜보며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빌어주었다.
인도네시아 근대 미술의 아버지 '라덴 살레' 라 명명된 거리에 위치한 UPNORMAL (구 오아시스)에서 점심을 먹었다, 네덜란드 백만장자의 저택이다. 그 시대에 예술가들이 많이 다녔던 거리라고 한다. 장윤원 선생도 이 예술가의 거리를 걸으면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현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를 꿈꾸었을까?

오후 일정은 헌병대에서 고문당한 장윤원 선생이 3년 반을 갇혀있던 살렘바 형무소(구 스트루스윅 형무소)와 멘뗑의 자택, 선생이 다녔을 법한 찌끼니 우체국과 거리를 돌아보며 진행되었다. 1960년 아트마 자야 대학이 시작된 고등학교 건물과 성당도 둘러보았다. (참고로 1967년에 스망기로 이전했다.)
살렘바 형무소는 한 울타리에 Penjara salemba(감옥)은, Lapas(교도소), Rutan(구치소), 소년원(LPKA) 세 개의 건물이 있다. 현재는 교도소에 1700명의 기결수와 구치소에 4500명의 미결수가 수용되어 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으나 장윤원 선생은 현재의 소년원 건물에 수감 되었다고 한다.
손녀와 함께 힘든 일정을 소화한 노부인은 "낯선 곳에서 자리 잡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혹한 세월을 이겨낸 분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문화탐방에 참여했다." 는 의사를 밝혔다. 철조망과 삼엄한 감시초소로 둘러싸인 형무소에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을 장윤원 선생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장윤원 선생의 멘뗑 자택은 현재 5층 건물로 BAPINDO 은행 소유이며 유통업체, 법률사무소, 보안업체 등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어 당시의 흔적

을 찾을 수는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인근 주택을 돌아다니며 장윤원 선생의 발자취를 탐문했으나 기억하는 이가 없었다.

재도약을 위해,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한 단계씩 밟아가기

"소설가 최인훈은《광장》에서 "인생을 풍문 듣듯이 사는 것은 슬픈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풍문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설 때 우리는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운명을 만나는 자리를 광장이라고 풀이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문화탐방을 이끈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이 일정을 마치며 소감을 전했다. 그의 고견을 더 들어보자.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할 목적으로 열심히 다녔던 오늘의 탐방지에 장윤원 선생님의 혼도 같이 다녔다고 확신합니다. '광장' 을 가슴에 안고. 그래서 오늘의 문화탐방이 남다릅니다. 살렘바 감옥에서 선생이 봤던 하늘을 저도 올려다보았고, 어쩌면 선생이 임시정부에 편지를 보냈을 법한 우체국 거리를 걸어보고 그가 마셨을 커피와 바람도 마셔봅니다. 구 네덜란드 예술관에서 제가 감상한 그림 앞에 선생도 오래도록 머물며 비통한 운명을 달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평소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을 좋아한다는 사공경 원장의 소신이 묻어나는 말이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한 류완수 영사는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한 단계씩 밟아가며 한인 100년사를 정리해가는 분들을 응원한다." 며 편찬위원회를 격려했다.

광장에는 언제나 역사의 바람이 분다. 힘든 일정을 소화한 참가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교민들도 각자의 광장에서 운명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끝맺으려 한다.

그는 누구?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손 한 평수석부회장

PT.DONGSAN HOLDINGS 대표

한인뉴스 편집국은 지난 9월 20일 반뜬 주 땅그랑 군 잠베 지역에 이전 신축 개업을 한 손한평 동산홀딩스 대표이사를 찾아가 인터뷰하였다.

- 인도네시아에 정착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섬유기계를 만들다 1999년 인도네시아로 와서 SK의 아웃소싱인 원사 가공을 시작으로 원단 제조를 하게 됐다.

동산홀딩스는 신발, 장갑, 가방, 헬멧 내부 충전제 등에 사용하는 원단을 제조하는 업체다. 1999년 설립된 동손인더스트리로 시작하여 올해 새 공장을 신축하면서 동산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출발을 알렸다.

동산홀딩스는 원사를 구입해서 직조기계로 생지를 직조한 후 염색하고 열처리까지 완료한 원단을 생산한다.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패션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과 빠른 제품 주기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납기가 생명이 됐다. 이에 따라 수입원단으로는 납기를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반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원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동산홀딩스 제품은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Adidas)의 인증을 받았다. 또한 재생원사를 일정 부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신축 공장 소개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동산홀딩스는 새 공장을 설계하면서 폐수처리시설에 중점을 두었다. 염색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침전과 미생물 분해를 통해 정수한 뒤 공장 옆 저수조에 방류했다가 그 물을 다시 끌어와 사용한다. 염색장, 폐수처리장, 저수조 어디에서도 화공약품 냄새가 나지 않는다.

'사업가는 원죄를 가진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원죄에서 시작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불확실성과 난관이 기본으로 깔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안정과 평화는 희망이고 순간이다.

친환경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재활용 페트병을 원료로 만든 원사를 혼합 사용하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루 500톤 사용하는 물을 100% 바이오 박테리아 공법을 사용하여 친환경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겸따마다(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의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려고 한다.

새 공장은 총 부지 8.2헥타르(ha)에 공장건물 1.2헥타르로 총 1,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월간 300톤 또는 150만 야드의 원단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 한인회 수석부회장으로서의 한인사회에 이런 저런 일을 해보니 어떠세요?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우선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역사이고 모든 역사는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사업이나 한인회 일이나 공통적인 것은 역시 나 방향을 잘 잡아야 하며 상황을 항상 순화로 돌릴 수 있도록 속도도 잘 조절해야 한다.

8월 30일, 동산 홀딩스 새공장 준공식

- 목소리가 좋으신데.. 혹시 노래를 잘 하시는지요?

잘 못합니다. 그래도 노래할 자리가 있을 때 저는 처지는 트롯보다는 템포가 빠른 고음역대가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직은 'Tears' 나 '반' 을 음이탈 없이 소화합니다. 하하하

- 은퇴 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무 심는 사람으로 조용히 전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편백나무가 빽빽한 Slowcity 에 가 보았는데 산림욕이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손한평대표와 인사를 주고 받는 밝은 표정의 직원들

폐수처리장을 점검(폐수처리된 물에 금붕어를 키워 수질상태를 점검)

자카르타 밥퍼 해피센터
Plaza Pasific A1 No.20
Kelapa Gading, Jakarta Utara
문의: 0811 809 515

다녀왔습니다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한인회 여성분과(채영애 수석부회장, 한인회 여성 임원)에서는 끌라빠가딩 지역의 밥퍼 해피센터 (기아대책본부에서 파송 된 최원금, 이현주 선교사 운영)를 찾아 현지 빈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밥퍼 해피센터는 딴중 뿌리옥 역사 부근에서 노숙자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세 번(화,목,토) 도시락(닭튀김과 밥)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빈민들과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시작하여 2007년 북부 자카르타에 센터를 만들어 자카르타 근교의 네 곳에서 일주일에 3회 밥나누기를 하고 있다. 초기보다 점점 확대되어 현재는 한 주간에 2,250명분(750명분 x 3회)의 도시락을 나누고 있다.

채영애 수석부회장은 "의미있는 일을 추구하는 여성 이사회는 이 밥퍼봉사를 통한 빈민사역으로 연약한 사람을 가슴에 품는 귀한 시작이 될 것이다. 한인회 여성 이사들의 사랑의 실천이 한인 사회의 많은 단체들에게 도전이 되어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원금 센터장은 "이 밥나누기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사역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도움 받으며 공부한 후에는 자립해야 해야 한다. 거기에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이며 우리 기아대책기구의 이념" 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정책에 대한 단상"

저금리, 정확한 경기 진단과 안정된 처방이 필요..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지난달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두 달만에 달러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자 브라질, 홍콩 등 다른 나라도 일제히 금리 인하에 동참하였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미국의 금리인하와 함께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하여 7일말 기준금리는 5.25%가 되었다. 경기 성장 둔화 등의 이유로 지난 석 달 동안 기준금리가 75bp나 조정된 셈이다.

한국은행 또한 8월 금리동결을 주장했던 금통위 위원들 다수가 경기에 비관적 진단을 내리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를 확인했고,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10월,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를 덜게 되고 금리인하의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어디까지 금리를 내릴까'로 쏠리고 있다. 현 기준금리는 1.50%로 한 번 만 더 금리를 내리면 역대 최저 수준인 1.25%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경기가 회복될 여지가 많지 않아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 0%대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미국 금리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은 '오리무중'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연준의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과 관련이 있다. 우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이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파월 의장은 인터뷰에서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추론 자체를 자제시키기에 급급해 보였다. 여하튼 미국 금리에 대한 눈치 작전과 경기회복을 위한 각국의 저금리 정책에 대한 노력은 눈물 겹기까지하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경기침체라는 진단에 저금리라는 처방은 항상 옳기만 한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먼저 필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하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이다. 소비와 투자는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가격만 오르는 경우 버블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내 가계대출금은 이미 1,500조를 넘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의 기조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초 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돈이 생산활동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 되는 등 달아오른 분양시장에 몰려든 개인들이 빚을 내어 아파트를 구매하고 또 빚을 내어 부동산 구입하게 하면서 가계대출은 더욱 늘어 나게 된다. 실제 올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이상이 신규 분양아파트 구매를 위해 단체로 대출이 실행되는 집단대출이라고 한다.

이처럼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구매력과의 격차를 불러와 거품을 만들게 된다. 더구나 부동산 버블은 가계대출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주택을 둘러싼 가계부채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집단대출 연체는 다른 가계대출의 연체나 주택보증기관, 건설사 등의 부실로 이어지며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전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금리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산업현장으로 가지 않고 단기차익을 기대하는 '재테크 시장'에 맴돌게 되는 등 자산시장의 머니게임에만 돈이 몰린다면 버블이 생기고, 그 샴페인 거품이 꺼지는 순간 우리 경제와 금융 전반을 뒤흔들게 된다.

아울러,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은 소비와 투자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와 같이 '총수요' 부문 만이 아닌 '총공급'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다. 경제성장률이 향상되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중앙은행들의 초저금리 정책은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하고, 결국에는 저금리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돈이란 건 조금 비싼 게 정상이다. 그래야 그 비싼 값을 치를 자신이 있는 사람들(생산성이 높은 경제주체)이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 투자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 값을 너무 싸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생산성이 높은 곳보다는 '당장에'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돈이 쏠리게 되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유한한 생산자원 가운데 하나인 노동력도 건설시장으로 쏠리게 되는데 건설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드나 생산성은 낮은 분야이다.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많은 노동력이 집중되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노동기술이 低생산성 분야에 축적되며 나중에 생산성 높은 다른 곳에 기회가 생기더라도 이 노동력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생산성 높은 곳은 일손이 부족해지고 임금비용이 높아져 경쟁력은 떨어지고 산업은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의견이 너무 비약적일 수는 있겠으나 몸에 좋은 약도 '과다복용' 시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경제정책도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

'훌륭한 경제학자란 전날 자신이 말한 것이 왜 틀렸는지 다음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라는 경제학자 자크 아달리의 말처럼 이론이 실제와 맞지 않는 상황은 빈번하며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통한 경제 정책수립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 경제 이론에 따라 정책을 시행했는데 결과가 예상대로 안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만큼 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 파장이다. 금리인하를 했는데 경기회복은 안되고 가계부채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이후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책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와 같은 장기 불황의 경제 상황에서는 더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등대

김준규

바다의 초병은 늘 반듯하다

부동의 차렷 자세로
깊고 빛나는 눈빛은
하늘과 바닷길을 밝히며
허공을 가르며 달려간다

손사래치며 출렁이는 바닷물
시간의 눈금도 표시되지 않은
일출과 일몰의 수평선에서
기적을 건져내는 어부

파도에 베어진 상처는
소금물로 씻어내며
아픔은 이랑의 물결로 끌어 덮는다

길을 찾는 희미한 불빛이라도
기다림으로 목은 타오르고

초병은 언제나 바람 밭에 홀로서서
별 아래 내던져진
외로움을 숙고하는가

한인니문화연구원 (IKCS) & 한-인니친선협회 (IKFA) MOU 체결

2019년 9월 12일 자카르타 꾸닝안 Raffles Residence에서 한인니문화연구원(IKCS)과 인도네시아—한국친선협회 (IKFA)가 체결을 했다.(이하 IKCS/IKFA)
양해각서 (MOU)에는 Adhi Wargono IKFA 의장과 사공경 IKCS 원장이 각각 서명을 하였다.

두 민간단체는 MOU 체결에 앞서 8월 28일 인한친선협회가 한인니문화연구원을 방문하였다. 두 단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향후 민간차원의 협업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다. 또한 두 단체가 서로 협업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 그 조언의 차원으로 사전에 미리 몇 번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당일 IKFA는 한인니문화연구원 외 3기관 <인니법학박사협회 (Asosiasi Doktor Hukum Indonesia), 인니문화협회(Belantara Budaya Indonesia), 보안업체 (PT Delta Buana Pratama)>과도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류완수 영사, 최순규 경북 자카르타법인장, 박성호 대구시 자카르타사무소장, 최인실 한인회사무국장, 그 외 연관기관 회원들 및 한인니문화연구원 조은숙, 박영미, 홍윤경, 아스리다(사무국차장) 외 IKFA를 비롯한 관계 연관기관 회원들 50여명이 참석하였다.

향후 3 년간 수행 될 협력 내용은 예술, 문화, 관광 및 교육 분야에서 양국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김창범 대사는 지난 3월 IKFA 새경영진 선언식 축사에서, "IKFA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스포츠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피력한 바 있다.
IKFA는 2005년에 설립된 단체이며, 한국에는 한-인친선협회 (KIFA)가 있다.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돈독한 교류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을 논의하며 서로의 국가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항상 즐겁다. (한인니문화연구원)

9월 6일, IKFA는 한인회를 방문하여
지난 5K걷기대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상호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까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지난 호에 이어

그렇게 기동하던 중에도 수디르만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는 무전기를 꺼내 인근 공화국군에게 작전명령을 하달하곤 했다. 그러나 수디르만은 밀림을 가로지르는 행군과 부족한 식량사정으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수디르만의 부대는 정글을 헤치며 계속 나아가 마침내 라우산 인근 소보라는 곳에 2월 18일 도착했다 다행히 소보 지역은 안전해 보였으므로 수디르만은 그곳에 게릴라전 지휘소를 설치하고 주둔키로 했다.

네덜란드군은 국내에서는 수디르만 장군을 체포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공화국 게릴라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시도하고 국제무대에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이미 멸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수디르만은 주치의 후따갈룽 중령과 함께 서방세계에 공화국과 TNI의 저력을 보여줄 대규모 공세를 조직하려 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작전이 1949년 3월 1일의 족자 총공세였다. 이 작전으로 수하르토 중령의 부대가 6시간 동안 족자를 점령했다가 철수하는 무력시위를 벌여 인도네시아군이 이미 궤멸되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공연히 주장하던 네덜란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국제연합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1949년 5월 7일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는 로엠-반로옌 조약을 맺은 후 1949년 6월 29일 네덜란드군이 족자에서 철수했고 유배되었던 수까르노와 인도네시아 정부도 7월 초 족자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유배에서 풀려난 수까르노는, 수디르만에게 족자에 돌아와 국정에 참여할 것을 명했지만 수디르만은 이를 거절했다. 그는 족자에서 의료혜택과 모든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네덜란드와 질적으로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여기던 족자의 정치권으

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끄라이작 전 당시 수까르노 정부가 네덜란드군의 포로가 되기를 선택하던 순간부터 그는 이미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어떤 편지 한 통을 받고 족자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누가 보낸 것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편지가 전달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로시한 안와르라는 기자는 1973년 저서에서 "수디르만은 공화국의 최고지도층 안에 불화와 알력이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족자에 돌아가야만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7월 10일 수디르만과 그의 일행은 족자에 입성하면서 수십만의 군중들과 정치엘리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8월 초 수디르만은 수까르노에게 게릴라전을 속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투도 없이 네덜란드군이 유유히 철군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그는 이제 인도네시아군이 충분히 강해진 상태에서, 사기가 꺾인 네덜란드군을 당장이라도 추격해 섬멸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앞서의 조약들이 모두 파기되었던 것처럼 네덜란드가 로엠-반로옌 조약도 언젠가 파기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수까르노는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고 수디르만도 의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퇴카드까지 꺼내 들고 다시 한 번 공격 요청을 냈으나 그의 족자귀환을 포옹으로 맞았던 수까르노는 이제 맘대로 해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전쟁은 끝나가는 중이었고 수까르노에게 있어 수디르만의 효용가치가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디르만은 내부갈등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게릴라전 속개에 대한 주장을 접었고 1949년 8월 11일 자바섬 전역에서 휴전이 발효되었다.

수하르토 중령

수디르만 장군 묘소

폐결핵이 악화된 수디르만은 다시 빤띠라삐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해 10월 빠껨 인근의 요양소로 이송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대중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고 그의 병세는 더욱 위중해져 12월엔 마글랑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그사이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정부는 수개월 동안 스트레이트로 진행된 헤이그 원탁회의를 통해 마침내 1949년 12월 27일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수디르만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새롭게 발족한 인도네시아 합주국을 섬기는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으로 재신임 되었고 12월 28일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선언되었다. 수디르만은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1950년 1월 29일 마글랑에서 숨을 거두었다. 34살의 젊디 젊은 나이였다. 총을 든 이후 인도네시아의 완전한 독립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로서는 최소한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임종소식이 RRI를 통해 보도되자 수디르만의 자택엔 수많은 손님들이 내방했는데 그중엔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제9여단 장병 전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수디르만의 유해는 족자로 옮겨졌고 제9여단에서 조직한 네 대의 탱크와 여덟 대의 자동차가 선도하는 발인행렬이 지날 때 인도엔 수천 명의 주민들이 애도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관료, 군 고위장령들이 참석했다. 그는 스마키 명웅묘지에 묻혔는데 조문객들의 행렬이 2킬로미터도 넘게 늘어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에 조기게양을 명했고 수디르만은 4성장군 대장으로 추서되었다. 예전에 한 번 달았던 계급을 회복한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TB 시마뚜빵 대령이 소장계급을 달고 군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를 추모하는 책들이 줄지어 출간되었음은 물론 그의 연설문들도 책으로 묶여 출판되기도 했다.

그가 주도했던 게릴라항전은 인도네시아군이 단결심을 배양하는 모체가 되었고 족자가 네덜란드에게 함락된 후 그가 걸었던 100킬로미터에 달하는 게릴라 루트는 생도들이 사관학교를 이수하기 전 꼭 완주해야 하는 과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수디르만 장군은 1968년 발행된 지폐에도 등장했고 그의 이름을 딴 도로, 학교, 박물관, 기념비 등을 전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가 '인도네시아 국민영웅'으로 지정된 것은 1964년의 일이다.
그가 게릴라전을 기동할 때 타고 다녔던 가마 얘기도 빠뜨릴 수 없다. 그의 폐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수디르만 장군은 부득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마를 타고 움직여야만 했다. 이 가마는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다.
수디르만과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사료들을 둘러보면서 와 닿는 아쉬움은 너무나도 달랐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상황이었다. 둘 다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 질과 방향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1945년 8월 17일 일본패망이 알려지자마자 그해 9월 유럽연합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수행할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자격으로, 그리고 네덜란드군이 옛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무력으로 되찾으러 진주하기 전 오랫동안 일본의 후원을 받아 준비되어 있던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은 즉시 정부를 구성하고 미흡하나마 군대를 조직해 자력으로 네덜란드군과 맞설 준비를 했지만 국내 항일세력이 거의 말살된 상태였던 한국은 친일파 청산도, 해외 독립투사들을 맞을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해 들어오는 것을 손놓고 바라보며 거기 빌붙을 궁리만 했었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은 우리에게 있어 나치를 물리치고 파리에 들어선 해방군이 아니라 '36년간 일본이었던 지역'에 진주한 점령군일 뿐이었므로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네덜란드군과 그 성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록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이 사실상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끌어냈지만 만주와 중국과 연해주 등지에서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독립군들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된 조국을 민족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스스로 미국과 소련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을 비명 한 마디 지르지 못하고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

민들과 지도자들이 정신차리지 못하고 허둥지둥 하는 동안 진주한 미군들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친일파들을 중용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미국을 등에 업은 세력과 친일파들이 서로 이권을 주고받으며 결탁하고 야합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해외에서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투사들은 귀국하는 족족 친일파들에게 빨갱이로 몰려 죽고 고문당하고 쫓겨나고 마침내 월북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제 강점기 당시 훼손되었던 민족정기를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패망을 맞고서도 4년 가까이 치열한 전쟁에서 더욱 많은 피를 흘린 후에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것은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을 크나큰 고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기를 한국은 갖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한다. 인도네시아가 겪은 독립전쟁의 시간은 예전에 네덜란드에 빌붙었거나 일본군 밑에서 부역했던 사람들에겐 '속죄의 시간'이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처음엔 네덜란드에게나 일본에게나 아무런 적개심도 없이 그저 체제에 순응했던 수디르만 장군이나 네덜란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우립 장군 역시 그 시간을 통해 숨어있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있는 데로 끌어내 마침내 독립

의 영웅, 건국의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 속죄의 시간에 일본군마저도 인도네시아에서 거듭 났다.

하지만 일본 외에는 당장의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한민족은 그렇게 일본이 패망하자 그 속죄의 기회마저 단숨에 증발해 버리고 말았다. 독립을 맞은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네덜란드군과 유럽연합군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어 모든 인민이 무서운 단결력을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미군과 소련의 점령군들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한국에서 친일잔당들은 민중의 보복이 자신에게 미칠 것이 두려워 점령군에게 빌붙으며 '빨갱이'라는 희생양을 만들어 냈고 유병언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호도했던 세월호 당시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반공을 기치로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모든 국가적 문제가 해결될 듯 수십 년 째 호도하며 자꾸만 자신들을 향해 기울어져 오는 총칼들을 매번 '빨갱이'들의 가슴을 향해 애써 방향을 틀어 놓았던 것이다.

속죄하지 않은 친일파들은 그들의 원죄를 숨기기 위해 그들이 가진 온갖 기득권을 동원했고 그들의 죄를 알고 있거나 파해치려는 사람들은 무사할 수 없었다. 그렇게 파묻어 둔 그들의 원죄는 국가적 염증이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썩어 들어가 우리 사회에 악취를 풍기는 암덩어리가 되어 국가와 국민을 갉아 먹고 있는데도 그런 일엔 이제 만성이 된 국민들은 세상이 원래 그러려니, 내가 뭔가 잘못했으려니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수디르만 장군이 인도네시아 사람들 마음속에, 모든 도시들의 중앙통 거리에, 건물과 박물관들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진정한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끝없이 추모하는 인도네시아가 참 부럽다는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2019 년 9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 목표 5.3%…의회 승인

8월 30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내년 5.3%의 실제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정부가 정한 목표를 승인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률 5.3%, 물가 상승률 3.1%, 루피아 환율 1달러=1만 3,900~1만 4,400루피아, 중앙은행채(SBI) 3개월물 금리 5.4% 등으로 설정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의회 제11위원회(재정 · 개발 계획 · 금융 담당)에서 "미 · 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이 둔화되어 내년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수출 금융 지원이나 미국이나 중국 이외의 무역 상대국을 개척하는 등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의회는 또한 내년도 실업률 4.8~5.1%, 빈곤율 8.5~9.0%로 합의했다.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 는 0.375~0.380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6주년…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46주년인 18일 자카르타에서 양국 관계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콘퍼런스가 열렸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인도네시아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신남방정책을 처음 선포한 곳이자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인니 관계의 청사진을 고민하는 오늘 자리가 시의적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마르 하디 주한국 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은 연내 CEPA 타결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및 총칙의 6개 분야로 나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2018년 교역액 200억 달러)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하디 대사는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 30%를 석탄이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양국 정상이 2017년에 선언한 2022년까지 300억 달러 교역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양국의 교역과 투자 현황을 발표하고, 조꼬위 2기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과 해외투자 유치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감면과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리잘 아판디 룩만 경제조정부 차관은 한국의 경제 급성장 요인으로 ▲ 수출 장려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노력 ▲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항공숙박예약 현지 유명 업체인 '트래블로카' 데니스 무하맛 마케팅 상무는 "K-팝과 K-푸드 등 한류 인기가 대단하다"며 "올해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방문한 국가 중 한국이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산또 다르모수마르또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1964년에 먼저 수교했고, 한국과는 1973년9월 18일에 수교했다.

다르모수마르또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항상 한반도 문제와 지역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고,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며 지난해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게임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가 함께 참석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인니 대통령, '파푸아 민심 달래기' 대통령궁 건설 약속

10개 요구사항 들고 온 파푸아 지도자 61명과 면담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독립요구가 거세진 파푸아 민심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꼬위 대통령은 10일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10개 요구사항을 들고 온 파푸아 지도자 61명과 면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일간 꼼빠스 등이 전했다.

뉴기니섬 서부의 파푸아는 50년 전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편입됐으나, 무장독립 투쟁이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파푸아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인도네시아 국기 훼손' 혐의로 파푸아 출신 대학생 43명이 체포되고 이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자 '인종차별'이라며 폭발, 소요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조꼬위 대통령을 만난 파푸아 지도자들은 토착 영토 구간 확대, 파푸아 주민들을 위한 중앙정부 기관 설립, 파푸아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과 안전 보장, 특별자치령 개정, 파푸아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전통기관 승인 등을 요구했다.

특히 파푸아주의 주도인 자야뿌라에 대통령궁을 지어 달라며 10ha의 토지를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파푸아 지도자들은 "대통령궁을 지으면 대통령이 파푸아를 단순 '여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꼬위 대통령은 각료들과 즉석에서 논의한 뒤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조꼬위 대통령은 "2020년부터 파푸아에 대통령궁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해 파푸아 지도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새로 졸업하는 파푸아 학생 1천명 정도를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시키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부분 요구사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연합뉴스]

중앙은행, 8월 외환 보유액 전월 말 대비 0.4% 증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6일, 8월말 외환 보유액이 7월말 시점에서 0.4% 증가한 1,26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전월 대비 증가 요인에 대해 석유 가스 산업 등에서 환차익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환 보유액은 수입 대금의 7.4개월 분 또는 수입 대금과 대외 채무 상환을 맞춘 금액의 7.1개월 분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국제 표준인 수입 대금 3개월 분을 웃돌고 있어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꼬위 인니 대통령 "중국 이탈 기업 33개 중 23개가 베트남행"

나머지 10개 말레이 · 캄보디아 · 태국행…인니는 하나도 없어

미 · 중 무역 분쟁 등으로 최근 중국에서 나온 33개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나머지 10개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으로 이전했으며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사무소 통계를 인용해 "안타깝게도 아무도 우리나라로 옮겨오고 싶어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고 CNN 인도네시아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중국에서 나온 어떤 기업도 인도네시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베트남에서는 두 달이면 해결되니 베트남을 선호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조꼬위 대통령은 또 2017년 일본에서 신규시장으로 이전한 73개 기업 중 43개 기업이 베트남을 선택하고, 11개 기업이 태국과 필리핀을, 10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통계도 인용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투자유치" 라며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불황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장관이 그들(투자자)을 섬겨야 한다" 며 "관료처럼 굴지 말고 그분들을 잘 모셔야 한다" 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경제신문
Jakarta Biz Weekly

Die Stube (Kemang)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한국의 살랑살랑 봄바람에 싱숭생숭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선선한 가을이 왔어요!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이 그립습니다....저 이번에는 가을 타나봐요 흑흑ㅠㅠ

10월 하면 세계적인 독일의 맥주축제인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앗…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이번 10월 달에는 빨간날도 하나도 없고 독일로 슝~날아갈 수도 없으니, 그 아쉬운 마음을 자카르타에서 그나마 달래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자카르타에서 독일 현지 본연의 맛을 가장 느낄 수 있는 독일 식당 <Die Stube>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식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더 많은 분들과 맛있는 음식을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 인도네시아 생활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개해 드립니다^^

식당이름 '디 슈투베(Die Stube)'는 독일어로 '그 가게'라는 뜻이에요. 2004년에 오픈한 이 식당은 끄망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카르타 독일식당 맛집으로 손꼽힙니다. 독일 하면 소시지, 소시지하면 독일 아니겠어요? 또 이 식당에 맛있는 소시지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 중에서도 Roasted Pork Bratwurst(125,000루피아++)를 추천드립니다. 브라트부르스트(Bratwurst)는 독일

소시지 종류의 하나로, 돼지고기 또는 송아지고기로 만들며 이 둘을 섞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파는 브라트부르스트 Normal 사이즈는 소시지 1개, Large 사이즈는 소시지 2개가 나오며, 사이드 메뉴로는 구운 감자와 자우어크라우트(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독일식 김치)가 곁들여 나옵니다. 수제 소시지라 그런지 뽀득뽀득한게 속이 참 알찹니다. Large 사이즈인데도 왜 소시지 2개밖에 안 나오냐고 실망하지 마세요. 시중에서 파는 소시지와 다르게 소시지 크기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함께 나오는 구운 감자도 쫄깃쫄깃한게 전혀 푸석푸석하지 않아요.

소시지 외에 독일 대표음식으로 독일식 족발인 슈바인 학세가 있습니다. 학세는 돼지 발 끝부분을 삶아서 한 번 더 구워낸 음식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학세를 다양한 메뉴로 파는데요. 그 중에서 Whole Roasted Pig Knuckle(315,000루피아++)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음식은 3시간 전에 미리 주문하셔야 맛보실 수 있어요! 3인용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2명이 먹어도 사실 부족해요~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게 정말 맛있어요@.@ 계속 고기만 먹다보면 느끼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사이드 메뉴인 크림 스피니치와 자우어크라우트를 한번씩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이 외 사이드 메뉴로 구운 감자, 베이컨 등이 있어 골라서 주문할 수 있어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우어크라우트는 사이드 메뉴에는 없지만 요청하면 주문할 수 있어요! 자우어크라우트 강추입니다! 이거 없이는 학세를 다 드시기 힘드실거에요ㅋㅋ

이 식당이 자카르타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시원한 맥주 안주로 뽀득뽀득 수제 소시지가 드시고 싶으신 분, 삼겹살 말고 바싹바싹 부들부들 돼지고기가 드시고 싶으신 분, 고민하지 마세요~이 곳이 딱입니다! 10월은 독일 음식과 함께 어떠실까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Die Stube>

음식 종류 : 독일 음식
가격대 : Rp 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금 9:00~24:00 / 토,일 10:00~24:00
전화번호 : 021-7179-3486
위치 : Plaza Bisnis Kemang I Jl. Kemang Raya 2, Jakarta

※ Zomato 참고

보로부두르 이야기 1 / 프라모다 공주

하연수 / 수필가 (한국문협 인니지부 감사)
yshaseolin@gmail.com

짠디(Candi) 보로부두르(Borobudur) 거대한 불탑 벽에는 천사백육십 면이나 되는 조각들이 가을 밤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인다. 그 별 같은 1,460면 조각들 중에서도 내가 그곳에 갈 때마다 꼭 먼저 가서 예를 올려야 하는 부조가 있다. 바로 패널번호 O. 20 부조로 오른쪽 상단에 왕비의 가슴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 바로 사마라퉁가(Samaratunga)왕의 딸 프라모다(프라모다와르다니)공주 때문이다. 천수 백 년 전 복수의 칼을 품고 접근하는 적대국 산자야 왕조 손자 피카탄(Pikatan) 왕자와의 정략 결혼 목적을 알면서도 한 결혼이었을까? 그 결혼을 받아들일 때 프라모다 공주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까? 아버지 사마라퉁가(Samaratunga) 왕이 이미 결정해 놓은 사일랜드라 왕조(Sailendra Dynasty) 후계자인 자신의 자리에 도전하는 동생 발라뿌트라(Balapubalap)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변방에 있어도 항상 가시 같은 존재인 산자야 왕조를 흡수해버릴 원대한 목적이 있었을까? 고고학자 H교수는 프라모다 공주는 피카탄 왕자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적 소용돌이에 프라모다 공주가 휘말린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인 결혼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은 프라모다 공주가 된다.

8세기 중반 메당왕국(Medang Empire)의 산자야 왕조(Sanjaya Dynasty)가 통치하던 중부 자와 케두분지(kedu Plain)에 갑자기 나타난 강력한 사일랜드라 왕조(Sailandra Dynasty)간 전쟁이 있었다. 승자였던 사마라퉁가 사일랜드라 왕은

종교적 목적으로 거대한 보로부두르를 만들었는데 뒤에 숨겨진 의미는 승전 기념탑이라고 S교수는 말했다. 이 위대한 불탑의 이면에 승전기념탑이라는 숨겨진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전쟁에서 패해 본거지를 잃고 북쪽으로 쫓겨간 산자야 왕조는 복수와 국토회복을 위한 삼대에 걸친 복수의 칼을 숨기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사일랜드라 왕조 후계자 내분을 틈타 오래 기다려 온 계획을 하나하나 심어 나갔다 했다. 결국 산자야 왕조 피카탄 왕자의 꿈은 이루어지고 메당 왕국 공동 통치자 프라모다 여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사일랜드라 왕조 본거지 마타람 지역에 거대한 힌두 사원 로로종그랑 훗날 쁘람바난(Prambanan)을 세운다. 이 또한 힌두 사원이지만 그 이면에 패망한 사일랜드라 본거지에 세운 승전 기념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S교수는 말했다. 긴 세월 복수와 국토회복 와신상담과 당한 방식과 똑 같은 복수였다니 가슴이 섬뜩하다.

그렇다면 피카탄 왕자는 산자야 왕조에는 대단한 영웅이지만 프라모다 공주에게는 사랑을 자신의 야망 성취 도구로 이용하고는 여인을 버린 비정한 인간이었던 것 같다. 프라모다 공주와 피카탄 왕자 이야기에 낙랑공주와 호동 왕자의 이야기가 쌍둥이처럼 대비되어 떠오른다. 낙랑국을 쳐야 했던 고구려 호동 왕자와 사일랜드라에 복수와 국토회복을 노리고 있던 산자야 왕조의 피카탄 왕자간의 시대를 초월한 공통점을 보게 된다.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적국의 여인의 마음을 사랑의 이름으로 흔들어서 목적을 달성하고는 버리는 비정한 인간들의 냉정함과 너무 닮아 보인다. 적국 낙랑을 지켜주는 신비한 비밀 레이더 경보 장치인 자명고를 찢게 한 후 전쟁을 하려는 호동 왕자는 이름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공주의 마음을 흔들어 사랑에 빠지게 한 후 자명고 찢는 비밀 임무를 낙랑 공주에게 맡긴다. 그 임무를 수행하면 낙랑 공주가 죽게 됨을 분명히 알고 있는 호동 왕자는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낙랑 공주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 낙랑공주는 자명고를 찢은 후 죽음을 맞았다. 호동 왕자는 자명고 기능이 없어진 낙랑국을 공격해서 점령했다.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상을 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랑을 이용해서 목적을 완수하고 그 상대를 죽게 만든 호동 왕자의 피는 분명 냉혈이었으리라.

저기 천 수백 년 전 프라모다 공주의 모습은 나를 순간적 연민의 정에 빠지게 만든다. 과연 프라모다 공주는 사일랜드라 왕조의 미래를 위해 정략 결혼을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 모두들 탐내는 왕관을 미련 없이 버린 영국의 에드

워드 8세처럼 순순한 사랑으로 받아들인 결혼이었을까? 평민이자 유부녀였던 심슨(Simpson) 부인과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에드워드(Edward) 8세의 인간다움은 차라리 단순 명료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S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각 개인에 그 프라모다 공주, 피카탄 왕자, 에드워드8세, 호동왕자, 낙랑공주 자리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의 질문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분명 프라모다 공주 자신은 누구보다도 이 정략 결혼은 사랑을 가장한 산자야 왕조와 왕자 피카탄의 계략임을 알 수도 있었으리라는 짐작이 간다고 S교수가 말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프라모다 공주가 피카탄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을 것이다.

프라모다 공주의 선택을 보려면 그 날의 주변 환경을 모두 감안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했다. 그 진심을 알 수 없는 프라모다 공주의 사랑과 야망의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걷혀지지 않은 안개 속에 남아있다. 복수와 국토회복을 위해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고 버린 피카탄 왕자, 알 수 없는 프라모다 공주의 선택 등 환경에 따른 인간적 가치 변화가 혼란스럽다.

피카탄 왕자를 이용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동생 발라뿌트라 군과 전투 승리를 보면 일면 성공한 정략 결혼 같아 보인다. 그러나 피카탄 왕자는 사일랜드라 국민들의 민심수습 때 까지만 프라모다 공주를 메당 왕국 여왕의 자리에 앉혀 놓았고, 안정을 찾은 이후부터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정략 결혼이라 하더라도 같은 이불을 덮고 살다 보면 인간 사랑 정이라도 드는 것이 아닐까? 여왕을 사냥이 끝난 후 별 용도가 없다고 처리해 버린 사냥개로 전락시켜 버린 것일까? 어디서 살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프라모다 공주에게는 산자야 왕조를 흡수하려다 흡수당해 버린 실패한 정략 결혼이었을까?
이 모두가 길게 내다보고 접근했던 피카탄 왕자의 위대한 전략이었을까? 어쨌던 마지막 승자는 피카탄 왕자였던 것 같다. 보로부두르 패널 번호 O. 20 부조는 프라모다 공주의 결혼과 사랑, 알 수 없는 변화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의미와 고뇌가 녹아서 만들어진 빛나는 의문의 별로 다가온다.

제100회 전국체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9월 27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강당에서 전국체전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강희중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출전하게 된 검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배드민턴경기에 새롭게 출전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새로운 각오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해주길 바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창범 대사는 "빨간 유니폼을 입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다. 가장 큰 규모의 100회라는 상징이 갖는 의미가 크다. 새로운 선수들의 기량이 드러나며 한인사회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한인동포들은 승전보를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응원할 것이다. 선수와 임원단은 아무 사고 없이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여 좋은 추억과 감동이 함께 하는 전국체전이 되길 바란다" 고 축사했다.

김태화 단장은 "일제의 질곡 속에서도 용솟음

쳤던 체육인들의 정열과 투지는 전국체육대회가 틀이 잡힐 무렵인 1951년 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광주에서 제32회 대회를 치를 정도로 대단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인도네시아 선수단도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지를 보였다.

이어 방진학 사무총장의 출정보고, 선수대표(축구 최창욱, 볼링 성윤경) 선서, 김태화 단장에게 단기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출정식을 마치고 선수(본부 15명, 축구 21명, 볼링 18명, 태권도 14명, 테니스 11명, 골프 9명, 탁구 7명, 검도 9명, 스쿼시 7명)와 임원 111명, 경기참관인 25명으로 총 136명이 전국체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후의 첫 행사로 그해 11월에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전쟁 중에도 이어간 전국체전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다. 10월 4일에서 10일까지 서울에서 펼쳐지며 인도네시아 팀은 8개 종목에 출전하여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과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발전하는 의료서비스, 그렇지만 더 가야할 길

지스 12학년 전주영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억 6천만명 정도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인구가 많음으로 인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많은 인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한 예입니다. 인접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병원 내방객의 60%에 가까운 환자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 각 읍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함으로써 20퍼센트에 달하는 유아 사망률과 48세밖에 되지 않았던 기대수명을 개선하려 했지만 느린 경제발전과 비효율적인 통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1970년도까지 사회 복지 및 의료 시설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1998년 수하르토 정부의 실각 이후 2001년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정부의 영향력이 전국 주, 읍, 심지어 조그마한 마을로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의료시설을 위한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의 지출은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 정부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소 발전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병원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2015년 인도네시아 병원의 총 수가 2,488개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병원 수의 확대에도 불구, 의료서비스의 접근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병원들이 크게 공립 병원과 사립 병원으로 나뉘는데 사립 병원의 수가 공립병원의 수에 3배에 도달함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하류층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직도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의 부족한 투자는 응급 치료 분야에 더욱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한국과 확실히 상이하게 인도네시아에는 아직까지도

응급 치료 및 응급 차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합 체계가 갖추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9년 응급 치료 시설의 부재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70%에 다다르자 인도네시아 외과 의사 협회에서 응급 치료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로 인해 1972년에 응급 차 프로젝트를 시범 운행 하였으나 국가 재정난으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1980년 말부터 자카르타, 빨렘방, 족자카르타를 비롯한 7군데 도시의 시청에서 118 구급차 서비스를 이행하였고 1990년대 말에는 18개의 도시가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는 가장 발전된 구급차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10군데 이상의 전략적인 지점에서 20여대의 구급차와 10대 이상의 구급 오토바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카르타 인구에 비해 구급차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에 대부분의 사립 병원들은 사적인 구급차들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소홀한 응급 의료시설에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문제는 사립 병

원의 구급차들이 유료인 것입니다. 의료 보험이나 상황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아서 할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중류층이나 하류층 시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구급차는 없습니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중상류층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차별 대우입니다. 예를 들어 Medic One과 같은 몇 군데의 사립 조직이 응급차와 응급 치료 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멤버십이 있는 중상류층 시민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응급차와 응급 시설의 민영화로 인해 생긴 문제도 있습니다. 말랑 같은 경우, 118 콜센터를 지원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민영화로 인해 118 응급차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118 콜센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3년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 자카르타 시에서 새로운 119 콜센터를 도입하여 응급 의료 시설에 개선을 모색하였습니다(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2013a). 또한 그에 힘입어 2016년 119 콜센터가 전국 27곳에 도입되었습니다(Dzulfiqar and Riza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구급차 출동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First REIT 2010)로 한국의 평균 3분에서 5분과 비교한다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2012년에 2,083개에 불과하던 종합병원 수가 2018년 4월 기준 2,820개로 35.4%의 증가를 보이는 등 인도네시아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조코위 대통령 집권 이후 개선되어 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응급 의료 서비스 개선 등에 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응급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해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4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저도 많은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나는 바하사로 수다떤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얼마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눈이 부시게' 라는 드라마로 대상을 수상한 연기자 김혜자님의 한마디예요.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나요? 빗소리, 바닷소리, 흙내음, 바람결, 같은 자연일 수도 있고, 마음에 와 닿는 노래가사, 한밤 중 몰입해서 보는 영화 한 편, 주말에 몰아서 보는 드라마, 나를 알아봐주는 좋은 사람과의 대화, 여유롭게 마시는 커피 한 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저는 유명인의 인터뷰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한 분야의 베테랑으로 불리우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궁금하거든요. 영화제 수상소감도 즐겨본답니다. 투박하고 솔직한 소감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잖아요.
이번 10월호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영상에서 나왔던 명대사를 인니어로 공부해볼까 해요. 바하사로 수다떠는 그 날까지 열공~!

♧ 드라마 <눈이 부시게 Dazzling> 김혜자 "오늘을 살아가세요"
Live your present. The present is here, live it. Live your life.

Sani : Aku bingung harus hidup bagaimana setelah resign*.
Dwi : Enggak usah galau. Jalani saja hidupmu yang sekarang.
사니 : 나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드위 : 걱정마. 그냥 오늘을 살면 돼.

* '일을 그만두다' 는 인니어로 berhenti bekerja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니 사람들은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resign 인니식 발음은 [리사인]
♧ 드라마 <고백부부 Go Back Couple> 손호준 "저지르고 나면 다 수습 가능한 일이야"
Sani : Dicoba saja, daripada nyesal di kemudian hari.
Setiap masalah pasti ada jalan keluarnya.
Eddo : Makasih Sani semangatnya.
사니 : 한번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해결방법이 다 있을 거야.
(jalan keluar 출구, 해법)
에도 : 응원 고맙다 야.

♧ 영화 <친절한 금자씨 Sympathy For Lady Vengeance> 이영애 "너나 잘하세요"

Lulu : Diana, aku stres banget gara-gara Ibu Kim.
Dia selalu suka campur urusan orang.
Diana : Biarin aja. "Bukan urusan lo!" digituin aja.
룰루 : 디아나, 나 이부 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야. 맨날 내 일에 참견해.
디아나 : 내비둬~ "니가 신경 쓸 일 아니거든?" 이라고 해주지 왜.

♧ 예능 <집사부일체 Master in the House> 양세형의 이야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하는 노력, "내가 안다" - 미켈란젤로

Maria : Rasanya pekerjaanku tidak pernah dihargai. Aku sedih....
Sani : Kenapa harus diakui orang lain? Aku tahu kamu rajin. Kan dirimu juga tahu sendiri. Siapa yang rajin dan siapa yang tidak. Enggak perlu bergantung pada pengakuan orang lain. Yang penting, kamu tahu apa yang kamu lakukan.
Maria : Makasih Sis.. Kena banget.
마리아 : 내가 하는 일이 한번도 존중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슬퍼....
사니 : 왜 꼭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해? 니가 성실하다는 거 나 알아.
너도 니가 성실하다는거 알고. 누가 성실하고 누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릴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니가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야.
마리아 : 시스터.. 고마워.... 완전 내 맘에 와 닿았어 (효과 만점이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 mantul = mantap betul 완전 최고다

♧ <집사부일체 Master in the House> 녹차와 소태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두 사람, 선택이 두려운 이승기에게 최민수가 건넨 말

Seungki : Saya selalu takut ketika saya harus memilih sesuatu dalam bekerja.
Minsu : Menurutmu, memilih sesuatu itu ada yang salah dan ada yang benar? Mengapa hidup ini harus dibagi jadi dua antara sukses dan gagal? Di dunia ini selalu ada pilihan ketiga yang tersembunyi.
승기 : 저는 일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항상 두려워요.
민수 : 선택에 잘잘못이 있어? 왜 인생을 항상 성공과 실패, 이분법으로 나눠야 해? 세상엔 보이지 않는 한 잔이 있어.

♧ 영화 <쿵푸팬더1> "비밀 재료 같은 건 없어.
특별한 걸 만들려면 특별하다고 믿으면 되는 거야"

There' s no secret ingredient.
To make something special, you just have to believe it special.

Sani : Pak, apa rahasia hidup bahagia?
Pak Prabowo : Enggak ada yang namanya kayak gitu.
Percayalah kalau dirimu sedang hidup bahagia.
사니 :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 있나요?
프라보워 : 그런 건 없어. 네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으면 돼.

♧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 Just Between Lovers> 나문희,
"강두야, 슬프고 괴로운 건 노상 우리 곁에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지 어카니.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재밌게 살면 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걱정말라"

Sedih dan pedih selalu ada di hidup kita. Kita hanya bisa terima saja.
Gimana lagi? Bisa hidup lebih bahagia dengan orang yang lebih baik.
Kamu pasti bisa. Enggak usah khawatir.

♧ 그림 그리는 아저씨 <밥 로스> "우리는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평생을 그려도 그림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수백년을 그리더라도 다음에 그릴 작품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걸
알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일을 계속 즐거워하는 듯 해요.
다음 작품은 더 나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We don' t make mistakes. We have happy accidents. You never learn it all in painting. Never. If you paint for milion years, you will always know that your next painting is going to be even better. I think that maybe it' s what keeps make me so excited about painting. As I know that the next one is going to be better.

Kita bukannya membuat kesalahan. Anggap aja terjadi sebuah kecelakaan yang membahagiakan. Anda tidak akan pernah bisa belajar semuanya.
Tidak akan pernah. Kalaupun Anda melukis bertahun-tahun, Anda akan selalu tahu bahwa lukisan selanjutnya akan menjadi karya yang jauh lebih bagus.
Saya rasa itulah yang membuat saya selalu gemar melukis karena saya tahu, lukisan selanjutnya pasti akan lebih bagus.

♧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에서
비비안 리(스칼렛 역)가 했던 대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Besok adalah hari yang lain."

Kita bisa belajar dari kesalahan hari ini. Besok masih ada kesempatan untuk memperbaikinya. Jadi, jangan pernah berhenti begitu saja.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이 와요. 오늘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멈춰서지 말아요 절대.

Kata-kata Motivasi Hidup 가장 큰 위로는 마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위로 한마디도 좋지만 '진짜 마음' 을 나누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힘겨워하는 인니 친구가 주변에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음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 너무 애쓰지 마. Jangan memaksakan diri.
▷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야. (인생의 모든 것은 시험)
Segala sesuatu dalam hidup adalah ujian.
▷ 오늘이 끝이 아니야. 아직 살 날이 많아. Hari ini bukan hari terakhir dalam hidupmu.
▷ 포기하지마. 끝까지 계속 싸워봐(노력해봐). Pantang menyerah.
Tetaplah berjuang sampai akhir.
▷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Kamu pasti bisa.
▷ 넌 할 수 있으리라 믿어. Aku yakin kamu bisa.
▷ 넌 내게 자랑스러운 친구야. Aku bangga sama kamu.
▷ 진심을 다해(정성을 다해) 일해봐. Kerjakan tugasmu dengan sepenuh hati.
▷ 행복한 걸 하렴. Lakukan apa yang membuatmu bahagia.
▷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네 옆에 있어. Aku akan bersamamu. Apa pun yang terjadi.
('신' 으로 바꿔도 돼요. Tuhan akan bersamamu. Apa pun yang terjadi.)
▷ 니가 가진 것에 감사하렴. Syukuri apa yang ada di dirimu. Syukuri apa yang kamu miliki.
▷ 울어도 괜찮아. 울면 후련할거야. Enggak apa-apa. Nangis saja biar lega.
(마음이 후련하다 lega)
▷ 실패해도 괜찮아. Jangan takut gagal. 실패를 두려워 마.
삶의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을 검색해서 더 많은 표현을 공부해 보세요!

#kata-kata motivasi hidup #kata-kata bijak tentang kehidupan
kata-kata mutiara # kata-kata penyemangat hidup

☞ 인니어가 궁금하면?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

JIKS

JIKS 신임 김윤기 교장 취임

지난 9월 2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에 김윤기 신임 교장이 부임하여 신학기 개학식과 함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신임 김윤기 교장은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나래홀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JIKS 학생들로서 지켜야 할 사항과 앞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당부로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글로벌해야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지금 생활하는 현지사정에 대해서도 언어와 문화 등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윤기 교장은 교육부 공채 전문직으로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학교정책국 등에서 7년간 교육연구사와 연구관을 역임하였고, 교감을 거쳐 경기도 소사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4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한 교육전문가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성과 영어능력(Global), 한국어와 민족정체성(National), 현지어 교육과 지역전문성(Local)을 두루 갖춘 글로내컬(GloNaCal)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직원과 함께 JIKS를 성장 ·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19.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부설영재교육센터 하반기 캠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 부설 영재교육센터 초 · 중 34명 학생들이 지난 9월 13일~15일 2박 3일 동안 말레이시아로 하반기 영재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UM)에서 진행하는 STEAM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기술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시키고자 계획되었다.

첫째 날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Malaya 대학교를 방문하여 동물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이 담겨있는 희귀한 동물 박제를 관람하였다. 또, 특별히 Malaya 대학이 자랑하는 파인애플 복제실험수업에 참여하여 복제기술에 대한 특강과 관련된 실험 수업 참관 후, 각자 실제로 파인애플을 복제해 보면서 멸종되어가는 식물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날은 말레이시아 최대의 놀이공원인 Genting Highland를 방문하여 친구들과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숙소로 돌아와 지도교사들과 함께 캔캔퍼즐, NIM게임, 성냥개비 퍼즐, 휴대폰 보조 배터리 만들기, Design Thinking 등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평소에 수업 시간에 나누지 못한 친구들과의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영재교육원 학생으로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날은 Rimba ilum 숲에서 "Water quality monitoring & Explorace at forest" 주제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숲에 설치된 5개의 코너를 돌며 자연 속에서 과학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돌과 나뭇잎을 이용하여 candle을 만들어 보고, 계곡에서 동물을 채집하여 물의 수질도 검사해 보았다. 그룹별로 멸종 위기의 동물들도 분류해 보고 바람의 원리를 이용한 자동차 만들기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번 영재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탐구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JIKS부설영재교육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과학 · 수학 · SW 영역의 내용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학년도 학생은 2020년 1월에 선발고사를 통해 초3~중2학생 4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족자카르타에서 첫선 보인 K-POP ACADEMY

- 족자카르타에서 달아오른 한류의 열기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주최로 전 세계 한국문화원에 K-POP 전문 강사들을 파견하는 'K-POP ACADEMY' 교육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했다.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K-POP ACADEMY는 물리적 여건상 자카르타에서만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폭발적인 수요와 인기에 힘입어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족자카르타에서도 처음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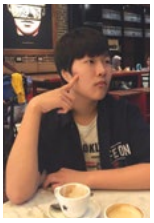
족자카르타에서 실시한 케이팝 아카데미 교육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 동안 족자카르타 한인회와 협력하여 족자카르타 본가 3층에 연습실을 마련, 커버댄스 초급과 중급 과정 2개반을 운영하였으며, 수강생은 지난 7월25일(목)부터 8월3일(토)까지 실시한 사전 온라인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50여명이 한국에서 파견 온 국내 유명 아이돌 안무를 맡아 온 박경열 안무가로 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번 강좌에는 최연소 수강생으로 10살 여학생이 참여를 했으며, 매일 부모의 손을 잡고 교육을 마치는 날까지 지각 한번 없이 참여를 했으며, 오로지 케이팝 아카데미 교육을 받기위해 수라바야에서 온 '케이팝이 곧 나의 젊은 날의 자화상' 이라며 당찬 다짐을 보인 학생부터 지난 7월 K-Pop World Festival in Changwon(KWF 2019)에서 당당하게 준우승을 차지한 케이팝 그룹 팀원들이 참여하는 등 그 열기는 자카르타 못지않게 대단했다.

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선보이는 종강식 즉, 'K-Pop 아카데미 미니콘서트' 를 개최한 9월 7일(토)은 족자카르타 내 한류팬들이 대거 몰리자 대중 앞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될 수강생들 표정은 자못 진중하고 긴장된 모습들이었다.

또한, 족자카르타에서 처음 실시하게 된 케이팝 아카데미 미니콘서트의 축하 공연을 위해 가자마다 대학교(Gadjah Mada University) 한국어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팀의 리더는 동기와 후배 8명을 이끌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물놀이 전통복을 착용하고 장구, 북, 징, 꽹과리를 들고 공연장을 찾아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였다. 사물놀이팀은 전문 강사의 지도 없이 "그저 한국 전통음악이 좋아 동료와 후배들과 방과 후 자율학습으로 유튜브를 통해 연습해오고 있다" 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족자카르타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한 중심에 서 있어 기쁘며, 이렇게 한국문화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는 소감을 전하는 등 유튜브를 보고 배운 실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전통 가락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매우 뛰어나 사물놀이팀 공연 내내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날아라 리플레시아



이정원
Bina Bangsa School
Semarang
Junior College 1

뭐가 됐건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버리고 나면 혹시 필요해질까? 지금 버릴 때는 좋지만 나중에 필요해지면 이건 못 구하는 거니 집도 크고 아직 이사 예정도 없으니 서랍에 일단 넣어두자. 나는 방이 쓰레기통이 되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엄마 눈에 띄지 않게 서랍에 차곡차곡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숨겨 놓기 시작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서랍에 들어 있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온 일기장, 일일 수첩, 영화표나 여행 다녀온 친구들이 준 열쇠고리나 한국에서 가져온 문구용품들, 동전 지갑 양말 등등 난 왜 신지도 않는 양말을 모으는건지 나도 이해할 수 없다. 해마다 많은 것들이 추가되고 있다. 1년마다 서랍들은 다시 정리했다.

아빠를 따라 인도네시아에 왔지만 아빠는 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셨다. 엄마는 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여기 남았지만 난 안다.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그리고 아직 이혼이라는 걸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대학을 가거나 한다면 분명히 이혼을 하실 거다. 엄마는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와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 아빠와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결혼 허락을 받기도 전에 내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경우였다. 엄마는 시집 살이도 엄청 힘들게 하셨고 또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내가 나와 버려서 더 미운 털이 박힌 경우였다. 할아버지는 종종 내 앞에서 "제사 똑바로 지내 줄 놈은 하나 있어야 하는데… 쯧쯧쯧 "하시며 혀를 차셨다. 아빠도 처음에는 어떻게 든 부모님과 엄마의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중간자의 역할을 포기하셨다. 보통 수준은 가볍게 넘어 버리는 까칠한 엄마의 성격과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으로 그 간격을 좁히기가 힘드셨을 거다. 거리라도 좀 멀리 있으면 나을까 싶어 한국에서 좀 벗어나 보자고 생각해서 여기 왔는데 생각보다 아빠 사업이 잘 안되신 거다.

난 초등학교 4학년에 인도네시아로 왔는데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 가신다고 하니 다시 한국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

에 와서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한국에서 영어를 많이 접해보지 않고 온 상황이라 아이들과 의사소통도 안되고 혼자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 점심시간, 브레이크 시간이 너무 싫었다. 그러나 이 삼일 정도 지나고 엄마가 싸 주신 도시락이 나름 아이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는지 같이 먹자고 하는 아이들이 생겼고 친한 건 아니지만 숙제를 알려주고 인사하는 정도의 친구는 생겼다. 그렇다고 내 속얘기를 할 그런 정도의 친구들은 아니다.

여기 여자애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뭐가 그리 다들 잘났는지 본인 자랑하기만 바쁘고 SNS에 사진 올리는 데만 집중한다. 하나같이 본인은 왕자, 공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대접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 뿐이다. 거기다 해외 여행은 또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나는 2년 반 동안 한번도 못 가본 한국을 무슨 본인들 친척집 방문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 갈 때마다 다들 나에게 한국가면 어디가 좋은지, 무슨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계속 물어보더니 3년째가되니 이제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넌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에 가지 않느냐고? 그러게 나도 진짜 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런 맘을 얘기할 수도 없고. 다들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 거란다 얘들아.

난 학교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대답을 하거나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시험을 보면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한다.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 복습은 꼭 한다.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할 때 나와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을 정도다. 오히려 한국애들 하고는 사이가 어색하다. 그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상하겠지 여자애가 춤도 못 추고 아이돌도 싫어하고,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당연히 살집이 있는 편이고 외모에 관심도 없고.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외모가 수준 미달이라 미리 포기했다고 해야 하나? '라플레시아 꽃' 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 꽃은 꽃인데 냄새도 괴상하고 덩치만 크고 생긴 것도 어찌 그런지 딱 나 같다. 이번생에서 외모는 포기. 애들끼리 돌아다니며 쇼핑하는 것도 싫다. 그러고 보니 내가 싫어하는 게 많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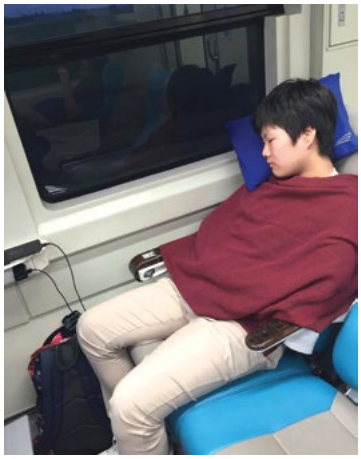
일부 현지 애들보다 더 답 없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살고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 여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돈 인 듯싶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녔더라면 알지 못했을 일들을 여기와서 눈치로 또는 한걸음 떨어져 있어서 알게 되고 보게 된 것들 이 많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더 싫어진 건 아빠가 한국으로 나가시고 난 이후다.

너네 아빠 사장이야? 뭐 만드는데? 이런 건 함부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장이 아닌데 여기 사는 한국인들은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던진다. 아버지 뭐 하시는지 물어봐서 집집마다 얼마나 사는 지 순위를 매겨서 분류하려고 하는건지 원. 너무 예의가 없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심하다고 아주머니들 얘기할 때 듣긴 했는데 여기 살다 보니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 남 잘 되는 걸 못 본다. 애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 못한다고 험담, 잘하면 공부만 잘하지 싸가지가 없다고 험담한다. 돈을 펑펑 쓰면 남편이 이런데 까지 와서 힘들게 번 돈을 부인이 생각없이 써버린다고 헐뜯고 돈을 아껴 쓰면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한다고 인생 뭐 있냐고 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사고 좀 꾸미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면 될 텐데 세금 왕창 맞지 않게 조심하라 느니 한국으로 돈을 미리 보내 놔야 한다 느니. 참 어이가 없다. 꽃게들이 한 통에

넣어 놓으면 밖으로 나가려는 다른 꽃게들을 끄집어 내린다는데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우리 아빠처럼 잘 안돼서 한국으로 가신 경우에는 더 심하다. 골프나 치고 직원들에게 회사일 맡겨 놓으니 잘될 리가 없다느니, 왜 같이 안 따라가고 여기 남았냐느니 개인적인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신다. 그때마다 엄마는 내 핑계를 대며 얘 지금 한국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돼서 힘들다고 여기서 아직은 잘하고 있으니 졸업하고 들어갈 거라고 매번 같은 답으로 입막음을 하신다. 그러냐고 잘했다고 애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지 라고 말씀하셨던 아주머니들. 우리 집 대문을 나가시자 마자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그것도 딸 키워서 … 에휴 나중에 뒤통수나 맞지 말아야 할 텐데. 서로 흐뭇한(?) 표정으로 (왜냐하면 심심하던 일상에 씹을 가십거리가 생긴 게 기뻐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며 가셨다.

난 엄마도, 아빠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 남은 건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첫째는 물론 엄마 때문이다. 내가 간다고 하면 엄마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엄마도 엄마의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둘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한번도 쓰지 않을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과목으로 정해서 애들을 괴롭히는지. 아이들에게 과목 선택권과 선생님 선택권을 준다면 좋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한국으로 가도 딱히 좋을 게 없어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게 그렇게 싫지 않다. 지금 한국을 가도 친구들을 사귀는 건 어려울 듯싶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해온 애들끼리 중학교까지 이어지는 게 다반사기도 하고 여자 아이들은 특히 오래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있을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졸업할 때까지 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걸까? 어느 책에서 봤는데 기간이 한정되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서. 말 되는 거 같다. 나도 어떻게 어디서 살 지는 모르지만 현재에 집중하고 싶다.



책을 보다 보니 잘 죽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만 한다고 했다. 난 멋있게 죽어야 하므로 죽기전까지 내 자신의 수준을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싶다. 뭔가 학술적으로 멋진 발견이나 논문이라도 쓴다면 금상첨화 일 텐데. 그렇다면 대학을 가야하나? 대학을 가야 공부다운 공부도 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 연애도 하고. 그러나 절대 결혼은 하지 않을 거다. 나의 DNA를 후대로 전하는 도구는 되지 않을 거니까. 도킨스는 너무 냉정하다. 그래도 생긴 게 멋있어서 봐준다.
학교 시험이 끝나고 애들은 다들 여행을 가는데 난 갈 데가 없다. 집에 있는 게 딱히 싫은 건 아닌데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어디라도 가고 싶은데….

스마랑 (SEMARANG)기차역에서 솔로(SOLO) 가는 기차를 탔다. 무작정. 기차는 3시간 정도를 달렸다. 앞 뒤가 서로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는 좌석은 등받이가 90도라 불편했지만 사람들 구경하기는 좋았다. 창가에서 지나가는 풍경은 별다를 게 없었다. 오히려 사람 구경이 훨씬 재밌다. 아기들은 어느 나라 든지 귀엽다.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나보다 어려 보인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여긴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솔로 기차역은 스마랑보다 훨씬 깨끗하고 멋진 듯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딱히 갈 데도 없고 팝미 (POP MI)를 하나 먹고 아무데나 가보자 싶어 버스를 탔다. 행선지가 딱히 없어 경치만 보고

가는데 옆에 히잡 쓴 언니가 말을 건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 웃는다. 오 코레아. 어디 가냐고 해서 갈 데가 없는데 스마랑 돌아가는 기차가 내일 새벽이라 버스를 알아보려 한다고 하자, 본인 집에 가서 하루 자고 가라고 한다. 정말? 그래도 돼?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언니를 따라 무조건 버스에서 내렸다. 인신 매매 일 수도 있지만, 뭐 나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싶기도 하고. 집을 떠나 모험을 한다는 기분이랄까?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거 같아 기분이 꽤 좋았다. 커다란 몰 뒤에 본인이 사는 꼬스(kos)가 있다고 했다. 부모님은 족자에 산다고 하며 솔로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했다. 졸업하면 초등학생을 가르친단다. 좋겠다. 뭔가 할 일을 정했다는 게. 난 뭘 해야 할 지 아직 뒤죽박죽인데… 대학생 언니랑 꼬스에서 들어 가기 전에 포장 마차 같은데 서 대충 저녁을 때웠다. 소또랑 토끼 고기 사떼도 엄청 먹었다. 인도네시아 음식이 의외로 맛있는 게 많다.

방에 들어가 히잡을 벗은 언니의 머리는 검은 흑발에 어깨를 넘는 완전 공주 머리였다. 이쁘게 파마까지 했는데 이렇게 예쁜 머리를 왜 히잡을 쓰는거야? 음~~ 글쎄 어렸을 때부터 써온 거라 … 그렇구나. 날씨도 더운데 왜 머리에 히잡을. 히잡을 써도 그렇게 덥지는 않다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히잡의 좋은 점은 일단 얼굴이 작아 보이고 계란형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닐까? 히잡을 쓰니 미용실 갈 필요는 없을 듯싶은데 또 파마는 하고 남보다 본인의 만족으로 하는 건가? 의문점이 점점 늘어난다.

잠시 후 언니는 기도 시간인데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내가 나가 있어야 하나 아님 그냥 방에 있어도 되나 물었더니 내 맘대로 하란다. 난 기도하는걸 보고 싶다고 했다. 하얀 천으로 머리부터 발 끝까지 온 몸을 덮고 한 쪽 방향을 향해 연신 기도를 하며 절을 했다. 기도가 끝나고 언니에게 물었다. 뭘 위해 기도하는 거야? 뭔가 바라는게 있어? 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냥 살아 있기에 하는 거란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여기에 태어나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란다. 뭘 해달라고 들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단다. 갑자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꽤 괜찮은 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내가 살아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 해 본적이 없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하나 하고 불평만 했는데 약간 반성이 되었다.

언니와 우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우린 우주에서 보면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런 티끌이 만날 수 있는 건 범 우주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존재 일거라고. 버스에서 뭔가 느낌이 왔다고 했다. 와우! 이건 뭐지? 그런데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다. 밤새 잠을 안자고 우린 수다를 떨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언니도 스마랑에 한번 놀러 오겠다고, 언니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언니는 다시 기도를 하고 난 기차역까지 택시를 타고 다시 기차를 타고 스마랑으로 돌아왔다. 이상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정말 우린 우주에서 보면 하나로 연결된 존재일까? 외계에 인간보다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생명체가 있을까? 갑자기 우주를 가보고 싶어진다. 죽기 전에 할 일이 한가지 더 생겼다.

친구들과 여행 어땠냐고 물으시는 엄마에게 재밌었다고 하고 난 다시 서랍에 기차표와 대학생 언니가 준 그림카드를 깊숙이 정리한다. 다시 일상의 시작이다. 루틴으로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진다. 여전히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살집이 있고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High School 학생이다. 못생긴 '라플레시아' 가 조금씩 꽃 피워 한달 동안 커다란 꽃을 피우듯 나도 나중에 '라플레시아' 처럼 큰 꽃을 피우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다.

건강을 위한 식사법

사람의 건강은 좋은 음식에서 섭취하는 영양분으로 젊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나쁜지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현대인이 고통 받는 많은 질환들은 그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사전에 교정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중에서도 식단과 식생활을 바꾸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

보통 40세 전후의 직장인이 있다면 그 중 20 퍼센트가 "건강 상류층"이고 나머지 80 퍼센트는 "건강 하류층"이다. 50세 접어들 무렵부터 현실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 직장인 사이에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 것은 어김없이 "매일 먹는 식사"다.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건강을 좌우할 뿐 아니라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능이 뛰어난 고급차도 불순 투성이인 휘발유를 넣으면 제대로 오래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 몸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35년간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10년이나 길어졌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밝혀진 것이 본래 유전적 체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과 반대로 병석에 누워 지내는 사람이나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나뉜다는 사실이다. 즉 선천적 체질보다 식사를 비롯한 생활습관이 장수와 단명과 큰 관련이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서남부에 위치한 "아치아롤리 마을"이 100세가 넘는 주민이 매우 많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치아롤리에 고령자들의 모세혈관은 매우 젊다고 한다. 그들은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또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기자 "댄 뷰터너"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취재한 내용의 [세계 장수 마을 블루존(Blue Zone)]이라는 책을 펴냈다. 책의 제목으로 쓰인 블루존은 100세가 넘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다음 지역을 들고 있다.

*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중부
* 일본 오키나와 북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 린다
*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 홍콩

이 지역 사람들은

1. 비만, 노화, 질병을 예방하는 슈퍼푸드인 "콩"류를 많이 먹는다

10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려면 "두부"를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한다. 두부, 낫토, 두유 같은 콩 제품이 장수를 돕는다.

2. 하루 350그램의 다양한 "채소"를 고루고루 먹는다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생선이나 밥만 많이 먹고, 채소섭취량이 적은 마을은 한결같이 단명 했다. 채소는 되도록 농약을 쓰지 않고 기른 것으로 유기농, 무농약 등의 품질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고르거나 그런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잘 씻어 잔류 농약을 제거한 뒤 먹는다.

3. 허리와 다리를 단련하는 "비탈길"을 걷는다

세계 최고의 장수 지역으로 떠오른 홍콩은 가파른 비탈길이 많은 지역이다. 장수하는 사람은 매일 몇 번이고 비탈길을 오르내린다. 이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되어 심폐 능력이 단련된다. 평지에서 생활할 때는 쓰지 않는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도 강해진다. 다리와 허리가 강해지면 제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계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장수하는 사람은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는다. 격렬하게 운동하

면 숨이 가쁘고 활성 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다.

4. 소일거리를 찾아 몸을 움직이는 "일"을 평생 놓지 않는다

장수하는 사람 중 샐러리맨은 없었으며, 대부분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며 정년없이 남녀 불문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한다." 는 사실도 밝혀졌다.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을 걸레질을 하면 꽤나 운동이 된다. 또한 직접 "요리" 를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5. 남을 도와주는 "봉사"로 삶의 보람을 찾는다

몇 살이 되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멍하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의학적으로 신체와 뇌는 혹사 시키는 것이 좋다. 사회와 가족,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식이든 공헌을 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좋다.

6. "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 심경경색, 뇌졸중 등 무서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폐의 X선 검사, 위조영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으로는 암을 조기에 찾아내기 어렵다. 위와 장은 "내시경 검사" 를 받는다. 흉부와 복부는 "CT 검사" 를 받는다. 뇌는 "MRI 검사 "를 받는다.

7. 칼로리의 30 퍼센트를 줄여 "과식"을 하지 않는다

고령인데도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과식하지 않는다. 배가 부르면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적게 먹기를 권장하는데 적당히가 80 퍼센트라면, 적게는 70 퍼센트쯤 된다. 배가 고프면 먹는 횟수를 늘이면 된다.

8.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왕성한 활동 후 마시는 와인은 장수에 기여한다.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한 "레드 와인" 은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한다. 또한 레드와인과 회이트와인 둘 다 혈당치를 낮춰준다.

1997년 프랑스의 "잔 칼망" 이라는 여성은 122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 분이 특별히 좋아한 음식이 "레드 와인" 과 "초콜릿" 이다. 카카오 성분이 많은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9. "주치의"를 잘 선정한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대개 어떤 병이든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운이 좋은 것은 병에 걸렸을 때 좋은 의료기관에서 좋은 의사에게 진료 받았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의 의사가 꼭 명의는 아니다. 유명대학의 부속병원에서 환자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는 갓 의사가 된 새내기가 많다. 해당 병의 전문의에게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건강식" 과 "건강 상식" 을 소개한다.

1.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당분으로 비만이 된다.
2.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보충제가 신장을 망친다.
3. 운동은 식후에 하는 것이 좋다. 공복기간에 운동을 하면 운동 후 식욕이 더 왕성해져 과식하게 되고,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다.
4. 당류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 채소와 함께 건강한 기름을 섭취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최고의 체중 조절법이다.
5. 캔커피는 '악마의 음료' 이므로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설탕 덩어리가 녹아있는 액체이기 때문이다.
6. 살이 찌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혈당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탄수화물이며, 지방이나 단백질은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다.
7. 탄수화물은 밥, 빵, 면류, 과일, 과자나 청량음료 등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다.
8. "피자"는 영양균형이 좋지 않지만 저렴하고 손쉽게 배를 채울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이런 음식이 비만과 당뇨병, 다른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
9. "건강에 좋다", "기운이 난다", "머리가 맑아진다"는 문구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광고를 하는 제품 중에는 설탕이 듬뿍 든 것이 많다.
10. 해조류를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11. 육류중 소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
12. 과일에 함유된 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이라 살을 찌우게 한다.
13. 과일을 쥬스로 만들어 먹어서는 안된다. 탄수화물이 듬뿍 든 쥬스를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은 최악이다.
14. "올리브유"는 거의 100 퍼센트 좋은 음식이다.
15. 빵이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 할 수 있다.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최고다.
16.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등의 견과류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등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17. 과일 중에 가장 권장할 만한 것은 "블루베리"다.
불루베리는 노화를 억제하고 시력을 좋게 한다. 생 블루베리를 날것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18. 커피는 당뇨병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갓 내린 커피를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고 마실 때의 이야기다.
19.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이 발효되면서 만들어 진다. 식초는 혈당치를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린다. 중요한 것은 "천연 양조 식초"를 골라야 한다.
20. 생선이나 야채 등 기생충 걱정이 없는 먹거리는 열을 가하지 않고 날로 먹는 것이 좋다. 그것이 싫으면 튀기는 것보다 데치는 것이 좋다.
21. 케이크나 과자 같은 단 음식은 탄수화물 덩어리 이므로 일절 먹지 않는다. 특히 저녁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22. "허기-폭식"은 "비만-노화-질병"의 원인이므로 조금씩 자주 먹자.
23. 가공된 소세지류는 첨가물에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24. 밤에 회식 등이 있을 때는 밥이나 달콤한 후식 따위는 못 본체 하자.
25. 젊고 활기 넘치는 몸을 만들고 싶다면 "장어, 참치, 닭고기" 같은 카르노신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자.

이상과 같은 건강상식을 지키고, 건강음식을 섭취하여 젊고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문헌: 식사가 잘못 됐습니다.

재인도네시아 대한 체육회 제공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풍성한 성과 함께 수출교두보 마련

- 수출상담 65건, 상담액 1억 3천만불 실제 계약 1,180만불 성과 달성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아세안(ASEAN) 신흥 해외시장의 전략적 개척과 중소기업 방위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이 18일부터 22일까지 현지 수출 상담회를 통하여 수출상담 65건에 수출상담액 1억 3천만불, 실제 계약액 1,180만불(한화 약140억원), 업무협약(7건), 인도네시아 무기 구매담당이 참여한 기업교류회(2회)를 통한 수출교두보와 경제교류 파트너십 마련 등의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20일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40개사 100여명의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참가하는 등 현지 기업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기업별 수출계약액 기준으로 (주)티아이씨 480만불, (주)대명 450만불, 창원기술정공 150만불로 특히, 범한산업(주)은 이번 상담회의 계약액은 100만불이나 올해 연말까지 인도네시아 (주)프로페스타마 인터네셔널(PT. PROFESSTAMA INTERNATIONAL)과 1,000만불의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은 '창원시 방위산업 중소기업 인도네시아 수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산업진흥원(원장 백정한)과 경남KOTRA지원단(단장 정형식)이 공동 주관하며, 창원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회장 오병후) 회원기업 15개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수출상담 외에도 인도네시아

방사청 구매 담당 대령을 비롯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교류회, 인도네시아 오일·가스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넘어선 교류 행사도 추진되었다.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들이 신흥해외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창원기업의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3대 무기 수출국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는 창원시의 상반기 아세안 나라 중 25%의 교역 최대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오는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방산기업을 초청해 '핀포인트 초청 상담회'를 추진하여 관내 방산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성과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인니 문화연구원 www.ikcs.kr

63회 열린강좌

셀프 동안관리와 건강하게 예뻐지는 법

일시: 2019년 10월 12일(토) 10:00~11:00

●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 (코리아센터 한인문화회관 1층)

Korean Center Building Jl. Gatot Subroto Kav. 58

★ 강사 : 약손명가 (백명숙 원장, 황보환희 원장)

● 강의 내용 : ▶ 얼굴부종 빼는 셀프관리법

▶ 목근육 푸는 셀프관리법

▶ 예쁜 광대와 턱선 관리법

☞ 신청: 연구원 밴드 band.us/@ikcs

☎ SMS/KT: 0838-7018-8118,

0838-7834-7811 (카톡ID: ikcskr)

Email: ikcskr@gmail.com

● 참가비 : 무료 ● 인원 : 20명

331~332회 문화탐방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 기획탐방> 2

한인 역사 속의 종교공동체 탐방

한인 디아스포라는 종교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한국학교 설립의 모체가 되기도 했고 한국거류민회 활동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마음의 창이 된 종교공동체의 뿌리와 그들의 열망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31회일시: 2019년 10월 26일(토) 8:30~15:00 (331회)

집결: 한인니문화연구원 8:30

탐방지: 임마뉴엘교회, 성이냐시오(말랑)성당, 카를로스성당, 대성당, 주님의교회, 성요셉성당 외

332회 일시: 2019년 10월 27일(일) 9:00~1500

집결: 해인사(파트마와띠) 9:00

탐방지: 해인사, 기원정사, 연합교회 (서만수목사기념관), (구)선교교회, 참빛교회 외

회비: 100,000/비회원Rp 150,000 (차량지원 외) 331회, 332회비 동일

접수: 밴드댓글: https://band.us/@ikcs

SMS/KT: 081-111-7230, 0816-190-9976 Email: ikcskr@gmail.com

A STAR IS BORN

적도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열정적인 청춘을 보내고 있는
김승욱(김할배), 박 남(박사슴)

2019.9.21

"청춘은 아름답고 노년은 마음이 좋다지만, 마음 좋은 청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트레이닝 센타 창업 준비로 바쁘지만, 저희를 믿고 불러주는 패션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의 무대란 우리가 만드는 것"
- 창업 준비 중인 청년 헬스트레이너들

#꿈이있는청춘 #꽃보다남자
#나때는말이야남자는자고로 #F2

좋아요 1498

Fal Chris Fashion show by Muhammad Fadel Christopol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인뉴스로 연락주세요.
A STAR IS BORN 코너에서 무엇이든 홍보해드립니다.
자격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개인회원입니다.

한인뉴스 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상 속 법(Hukum Waris)(1)

1969년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직접투자 진출로 형성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지 50년이 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 타계한 분들의 수가 상당하고 한인동포사회 원로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며,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해서 인도네시아에 귀화하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해서 온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해서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었으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하면 되겠지만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분들은 인도네시아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해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발생하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한국 상속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하나뿐이어서 비교적 이해가 어렵지 않으나 다원화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상속법은 이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상속에 관한 실정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으며, 이슬람 신자는 이슬람 상속법을 따라 상속을 하며 상속에 분쟁이 발생하면 종교법원에 가서 해결을 하나 개신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 신자는 민법 제2권 물권법에 따라 상속을 하며 상속분쟁 관할권이 일반법원에 있다.

상속인들 간 유산 배분율을 보면 인도네시아 상속법은 한국의 상속법과 차이가 많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동포가 타계하면 우선 유산의 50%는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며, 나머지 50%는 배우자와 직계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유산을 상속받는다. “예” 를 들면, 유산이 1,000억Rupiah인 경우에 우선 배우자에게 500억Rupiah가 상속되며, 나머지 500억Rp.는 직계자녀가 3명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자녀 3명, 즉, 유족 4명이 균등 분배하여 상속을 받는다. 계산해보면 배우자는 500억Rp. +125억Rp. = 625억Rp.를 상속받고 직계자녀는 1인당 125억Rp.를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이 한국국적 보유자인 경우에는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배우자는 직계자녀의 1.5배만큼 상속을 받는데 피상속인이 인도네시아 국적보유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직계자녀보다 훨씬 많은 상속을 받게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 인도네시아 상속법과 인도네시아 상속법 간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수래공수거 ,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허무한 존재가 인간의 실체라는 철학적인 인간 묘사가 인간의 실체인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자신이 오래 동안 생각했던 목적으로 유산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피상속인의 생각일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직접 재산을 물려주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언장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혹은 살아있을 때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 뒤에 남은 유족들이 법규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 대기업의 총수의 유족들이 유산 분배 때문에 법정투쟁을 한다는 기사가 메스컴에 가끔 나오고 있지만, 둘러보면 유산 상속 문제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를 여위고 나서 유산 분배에 합의하지 못하고 상속 문제로 불화하여 형제들이 의절하고 지내거나 법정싸움을 하는 형제들도 볼 수 있다. 상속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실정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1. 상속의 뜻

상속(Waris)이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죽은 사람의 재산상의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뜻한다. 죽은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의 의무도 동시에 승계한다.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죽은 사람의 빚도 자동으로 승계된다.

2. 피상속인 과 상속인

죽음으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Pewaris)이라 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Akhli Waris)이라고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친족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 재산 상속의 개시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산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시기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기간 만료 시부터 상속이 개시된다고 본다.

4. 상속의 객체

상속의 객체(Warisan)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Warisan)이다. 그러므로 상속하면 재산상속을 의미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상속받는다고 하면 재산상의 권리만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재산상의 의무도 물려받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물려 줬으면, 회사의 주식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채무도 물려받아야 한다. 법에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받으면 반드시 재산상의 의무도 상속받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회사의 주식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의 뜻은 법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채무액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사의 주식 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아버지가 물려주는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해지게 되므로,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을 거부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4. 상속의 종류

민법상에 재산 상속은 법정상속(Pewarisan AB Intestaat)과 지정상속(Pewarisan Testament/Wasiat)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정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피상속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승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자기 유산을 어느 특정인에게 승계해주라는 지정상속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해주는 상속을 의미한다.

5. 지정상속(유언장)

5.1. 살아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유언은 법적으로 설명하면, 재산에 관한 사항이나 비재산에 관한사항이나 유언자가 사망 시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자기의 뜻을 상대방이 없이 유언자가 남기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자는 하시라도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해야 하며 대리유언은 인정받지 못한다.

(다음 호에 계속)

박물관 헤리티지

글 : 이수진 (문예총 수석 부회장/
혜리티지 박물관 해설사)

석회 용기 Lime Container Wadah Kapur

18세기 수마트라 남부 빨렘방 재료 금, 다이아몬드 높이 5.8 지름 4.9 유물번호 E251

이 석회 용기는 비틀 너트 세트 일부로 왕족의 소유물이다.
아랍 스타일의 식물 문양으로 장식된 금 용기로 비틀 잎을 씹는데 필요한 재료인 빈랑나무 열매(Areca Nut or Betel Nut), 석회 반죽(Lime Stone), 담배, 비틀 잎, 취향에 따라 첨가되는 향신료 등을 담는 용기이다. 비틀 잎에 빈랑 열매, 석회 반죽과 취향에 따라 향신료와 같은 다른 재료, 담배를 혼합한 후 말아서 입담배를 만든다. 비틀 잎을 씹는 풍습은 오래전부터 동남 아시아 전역에 행해져 왔고 인도네시아에도 전해 내려오던 풍습이다.
이것은 일반적 의식(儀式)과 사회적 예식 때 모두 사용했는데, 단순한 환대의 표현을 넘어서 함께 한 사람들이 일체감을 느끼도록 단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비틀 잎을 씹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의미하고 손님에 대한 환영을 상징한다.

감비르 용기 Container Wadah Gambir

18세기 수마트라 남부 빨렘방 재료 금, 은,
루비 높이 5.2 지름 6.4 유물번호 E249a

비틀 너트 세트를 구성하는 재료인 감비르(Gambir)를 보관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용기의 몸체는 감비르 넝쿨 식물 문양으로 섬세하게 가득 채워져 있고, 루비와 다이아몬드 등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황금 유물에 식물 넝쿨 장식을 자주 사용해왔고 금과 은은 귀족 가문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덩굴 식물의 일종인 감비르는 원뿔 모양으로 쓴맛과 단맛이 강하다. 감비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애용하였다. 열매를 잘게 썰은 후 빈랑 열매 등 다른 재료와 함께 잎에 싸서 씹었다.

왕관 Crown Mahkota

1950년 기증 됨 수마트라 리아우 재료 금, 다이아몬드,
루비 직경 33 높이 9.8 유물번호 E251

리아우의 시악(Siak) 왕국의 왕족이 소유했던 왕관이다.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장식되어 있고 다양하고 섬세한 세공으로 화려하게 제작되었다. 1945년 독립 후 샤리프 카림 2세(Sultan Syarif Karim II)는 시악에 대한 왕권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는 왕관과 왕조의 문장(紋章)인 달과 별 모양의 브로치를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바쳤다.

(사진제공: 국립제주 박물관)

문예총 제 6회 종합예술제 “예술의 꽃을 피우다”
2019년 10월 19일 ~25일 개최 안내

*장소 : 롯데쇼핑 에비뉴 메인 아뜨리움(GF)
*예술제기간: 2019년 10월 19일(토) ~25일(금)
*개막식 및 축하공연 : 10월 19일 (토) 2시~4시30분
*본공연 : 10월20일 (일) :3시~4시30분
*1318청소년 예술 경연대회 : 10월 20일(일) 1시 ~2시반
*릴레이 미니 콘서트 10월 21일~25일 1부12시~1시 2부 6시~7시

재인도네시아 한인문예총(회장 박형동)은 올해 10월에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제 6회 종합예술제’ 를 성대히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의 규모는 1주일 간의 전시회, 주말동안 이틀 간의 문화공연, 부대 행사로 평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한 릴레이 미니 콘서트 , 청소년 13~18 예술경연대회 등이다.
특히나, 1318청소년예술경연대회는 최근에 청소년을 위한 열린문화의 연결고리에 첫단추를 끼우는 의미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13살부터18살까지의 꿈과끼를 갖고있는 청소년이면 자신있게 도전해 보면 좋을 듯하다
초청 전시로는 한인 꽃꽂이회 및 한국에서 초청되는 단체로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 지 니), 정가단 “아 리” 등이 참가하여 다채로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문예총 소속 단체 중 이번 전시회와 공연에 참가하는 단체는 전시단체로 미협(회장 신돈철), 문협(회장 서미숙), 월화차회(회장 이춘순)이며 공연단체로 KISO 한인 오케스트라(단장 허민경),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JKCC회장 김혜정), 아르떼 여성합창단(단장 채영애, 지휘 김영희),음협(회장 채영애, 부회장유은영), 아버지 앙상블(단장 김종규), 색소폰동호회(회장 박의태), 한바패(회장 박형동), 한인무용단(단장 정방울), 국악사랑(단장 장방식)이다.
초청 단체로 한인꽃꽂이회, 샌드 애니메이션(작가 지 니), 정가단 “아 리” 등이 출연을 하며 한국문화원이 준비한 디카시 공모전 수상작 26점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예술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사과나무 열매’ 사랑메세지 걸기 행사를 비롯하여 10월 19일 플레시몹 ‘나는 대한민국이다’ 10월 20일 샌드아트 체험, 10월 21일 부채그림그리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주일간의 예술제 기간동안 부대행사로 진행될 릴레이 미니콘서트는 10월 21일~25일까지 점심과 저녁식사시간에 1부, 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318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는 10월 20일 일요일 1시 본선 경연으로 치룰 예정이다. 몇해전부터 문예총 소속 16개 단체는 전시회, 공연을 격년으로 번갈아하기로 하여 서협(회장 송판원)과 한지공예(대표 김경애), 극동방송 합창단(단장 신정일)등 몇 단체는 작년 행사에 참가하여 올해는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문예총에 가입한 자카르타 사진 동호회(회장 최종윤)는 문예총과 함께 발맞추어 풍성한 잔치를 위해 힘을 보태주고 있다.
‘예술의 꽃을 피우다 ‘ 주제에 걸맞도록 아름드리 꽃을 피우며,다채로운 향을 낼 수 있도록 10월 행사에 많은 교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문예총 회장 박형동–

공광규 시인
인도네시아어 번역시집 '햇살의 말씀'(Pesan Sang Mentari) 출간

GRASINDO

Pesan Sang Mentari

햇살의 말씀

공광규 (Kong Kwang-Kyu) 지음
130×195 | 114쪽 | 51,000Rp(w5,000) |
2019년 8월 13일 펴냄
인도네시아 KOMPAS GRAMEDIA
그라신도 출판사 | ISBN 978-602-05-1992-0

한국의 대표 서정시인인 공광규(59) 시인의 인도네시아어 번역시집 '햇살의 말씀 Pesan Sang Meatari' 이 지난 8월 23일, 인도네시아 현지 출판사인 그라신도 출판사에서 출간 되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회장 서미숙)는 한국문학 세계화위원회(대표 권대근)와 협력하여 한국의 서정시를 인도네시아에 알리는 첫 번째 사업으로 공광규 시인의 인도네시아어 번역시집을 기획-출판하였다고 밝혔다. 공광규(59) 시인의 인도네시아어 번역시집 '햇살의 말씀 Pesan Sang Meatari' 의 기획 및 번역은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서미숙 작가와 인도네시아인 번역가 하신타 루이사가 맡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명시인 조꼬 삐누르보 시인(Joko Pinurbo)이 인니어 최종 감수를 하였다.

공광규 시인의 시집 'Pesan Sang Mentari' (햇살의 말씀)은 인도네시아 콤파스 그라메디아(KOMPAS GRAMESIA) 서점을 통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인도네시아 전국 어디서나 구입이 가능하다. 공광규 시인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적도문학상 시상식에 초대되어 인도네시아 문인들과 교류를 가졌으며,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얻은 제재로 몇 편의 시를 써서 한국문단에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Pesan Sang Mentari 햇살의 말씀' 에 수록되어 있는 시집을 감수한 인도네시아 유명시인 조꼬 삐누르보(Joko Pinurbo)의 추천사와 기획자의 말, 그리고 그라신도(GRASINDO) 출판사 서평을 소개한다.

◆추천 글-인니어 번역 감수 : 조꼬 삐누르보(Joko Pinurbo) 시인

공광규 시인의 시는 삭막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과 집이 하도 많아서/ 하느님께 모두 들르시기가 어려운지라" (시 '햇살의 말씀')에서처럼 적절하고 따뜻한 시어와 상세한 시적 이미지를 구사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인간과 자연(그리고 다른 생물들) 사이의 사랑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공시인은 일상의 작은 이야기와 크나큰 세계를 하나로 묶고, 초월적인 것을 탁월한 삶의 경험으로 만드는 데에 능숙합니다.

◆기획자의 말- 서미숙 (수필가, 시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문화가 K-Pop과 드라마 및 영화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를 포함한 한국문학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서점에서 번역된 한국소설이나 만화는 가끔 찾아 볼 수 있지만, 시 컬렉션의 형태로 두 언어(이중 언어, 인도네시아 및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집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판사 서평-그라신도 Grasindo-Gramedia Indonesia

상상의 언어로 포장되고 시적 의미로 가득한 조밀한 언어구조를 사용하여 배열되어 있는 공광규 시인의 인니어 번역시집 'Pesan Sang Mentari' 은 시인의 내적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광규 시인은 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같은 우주에서 똑같이 사는 대가족이라는 진실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그리고 생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제공: 한국문협인니지부)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수상자 이은주 시인 특별인터뷰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찾아가는 과정

지난 8월 초, 재외동포문화재단은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가작)수상자로 '아버지와 가자미식해'를 응모한 이은주 시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본 문학상은 해외 거주 7년 이상 되는 동포에게 응모 자격을 부여하며, 5월에 시와 소설, 체험수기 세 분야에서 공모를 내고 응모자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 이은주 시인의 수상이 특별한 이유는 주최 측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시 응모자들의 작품이 뛰어나 수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선 수상자의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자.

"수필과 소설 등 산문을 쓰기 시작하다 처음으로 재외동포 문학상에 시를 응모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당선 소식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글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준 인니 '와담리 문우들'과 기쁨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필자도 기억이 새롭다. 산문 형태로 된 '아버지와 가자미식해'가 기억나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고향 파도 소리 그리워지는 날에는 물 좋은 참가자미 소금에 재워 메조 밥에 그리움을 다독거리며 북청 물로 가자미 재우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함

시인은 아버지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망향가를 아버지의 눈물로 만들어진 가자미식해로 환치시켰다. 그리고 시인 자신은 대서양 건너 적도 아래에서 끈적끈적한 참가자미 속 내장을 꺼내 햇볕 좋은 문간에 앉아 가자미식해 항아리 속을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채운다는 내용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으로 인해 수상작 전편은 작품집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니,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은주 시인은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을까?

"한국에서는 수필가로 활동을 했었고, 인도네시아로 온 후 줄곧 무역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낯선 이국땅에 적응하며 10년간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글을 쓸 시간도, 읽을 여유도 없더군요. 하지만 항상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마 채워지지 않는 문학에 대한 갈증을 느꼈나 봅니다. 이제 고이 모셔둔 묵은 책들을 다시 펼쳐보렵니다. 이번 재외동포문학상은 저에게 글쓰기를 다시 하라는 운명의 채찍질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랬다. '아버지와 가자미식해'의 마지막에 나오는 등장하는 노을이 아버지 얼굴을 타고 가자미식해를 붉게 물들였다니, 그 붉음은 외로움과 그리움의 '붉음'이었으리라! 때로는 글로써 이루지 못한 메조 밥 알갱이 같은 안타까움도 녹아있으리라.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실제로 '고립'의 삶이다. 우리는 이 고립을 끊어내고자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에서 교류하며 나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이은주 시인에게는 이 고립을 작가의 특권처럼 누리고 있다. 외로움과 그리움의 방정식을 글로써 제대로 풀어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유년의 기억으로 다 채워지지 못한 그리움으로 남은 빈 그릇에 이제 문학의 꿈이 가득하리라.

오늘 유난히도 붉은 적도의 노을, 붉다는 것이 좋아졌다.

글: 김주명(시인, 롬복 거주)

INTERVIEW
DI JALAN

NO. 10

Pancoran 사람들

2019. 9

바리스타 Mr. Bayu (20살)

인도마렛 매장 안에만 있는 우리 커피숍은 전국에 200여개 되지만 빤쪼란에는 지난 5월에 오픈 했어요.
Aceh Gayo 커피만 사용하는데 값이 싸고 맛도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요. 이제 하루 80~100잔 정도 팔고 있어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평일에 돌아가며 쉬는날에는 집안 일도 돕고 시간나면 동생과 베드민턴을 즐깁니다.
고향은 족자인데 초딩때 가족 모두 자카르타로 이사와서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삽니다.
대학에선 IT를 전공했는데 형편상 휴학 중이고, 지난 2년은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여기서 약 1년 정도 더 일해서 돈이 좀 모이면 대학을 마치고 싶어요.
제 소망이요?
글쎄요... 우선 대학을 마치고 어디에서 일하든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내가 한인 잡지에 실린다고요..? 아~처음이라 긴장 되네요. 잘 부탁합니다. 하하하~

우리 동네 솜씨왕

상 장

상명 : 동상(BRONZE PRIZE)
성명 : 김인성 KIM INSEONG

위 사람은 사단법인 캐릭터디자이너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9국제캐릭터콘텐츠 공모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This award is hereby presented to those who have achieved outstanding results in the 2019 International Character Contents Competition, hosted by the Association of Character Designers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년 7월 18일

김인성(G3, ACS Jakarta) 제목: 바다를 보호하자
오염된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고, 잠수부가 바다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모습을 그렸어요.
장래희망은 어부고요
상을 타서 기뻤어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19.8.31.~ 9.30.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루피아	달러
99	권희정 이사	PT. SAMICK INDONESIA	14,000,000	
100	이완주 이사	PT. PERTIWI INDO MAS	14,000,000	
101	채인숙 이사	한인회 여성분과	14,000,000	
102	방진학 이사	PT. HANSUNG INDOTAMA WORLDO	14,000,000	
103	허진경 이사	한인회 여성분과		1,000

9월호 98번에 이어 게재

2019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부일순

번호	성 명	금액(IDR)
132	권희정	300,000
133	홍종서	300,000
134	안창섭	300,000
135	성예식	300,000
136	김서겸	300,000
137	이기영	300,000
138	조용재	300,000
139	이완주	300,000
140	엄정호	300,000
141	채인숙	300,000
142	조규철	300,000
143	서정식	300,000
144	이기자	300,000
145	유한숙	300,000
146	허진경	300,000
147	방진학	300,000

9월호 131번에 이어 게재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한국인 직원 구인 / 구직 적극 지원
아래 주소로 이력서 송부 바랍니다

✓ 한국인 인재 추천..

각부문 신입 / 경력 직원

(현지 대학 졸업자 우대)

Recruitment Service

OS SELNAJAYA 세르나자야

Korea Desk
0878-8042-9794
021-572-7214
hwangyh@os-selnajaya.com
www.os-selnajaya.com/en

domestic : Karawang, Cikarang, Bandung, Surabaya, Cibubur, Lembang. Jakarta : 19th fl. Mid Plaza II, Jl. Jend. Sudirman Kav 10-11 Jakarta, Indonesia
overseas : Vietnam, Malaysia, Singapore, Cambodia, China, Japan, HK, India, Australia, Germany, Belgium, Poland, UK, Chile, Peru, Brazil, Colombia, Ecuador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례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오롬컨설팅
PT.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혜광고(서동히)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죠지언 퍼니쳐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효(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 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설계/제작/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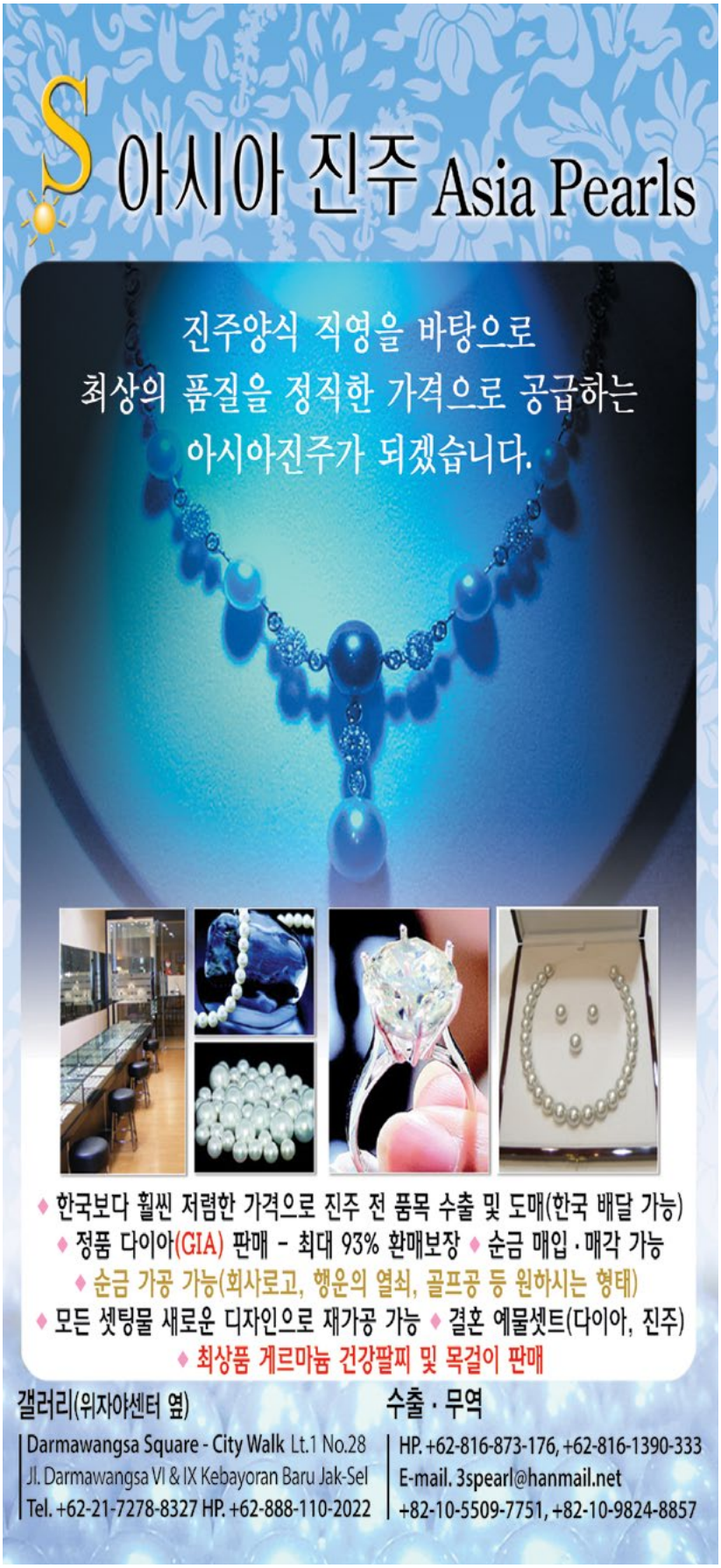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DREMLAND TOUR	745 1961
KOURUS TOUR	744 72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L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ANUR)	918 1888
부가	805 1212
한일관	727 250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BALI TEGEHE AGUNG	298 643
SUN JEWELLERY	761 537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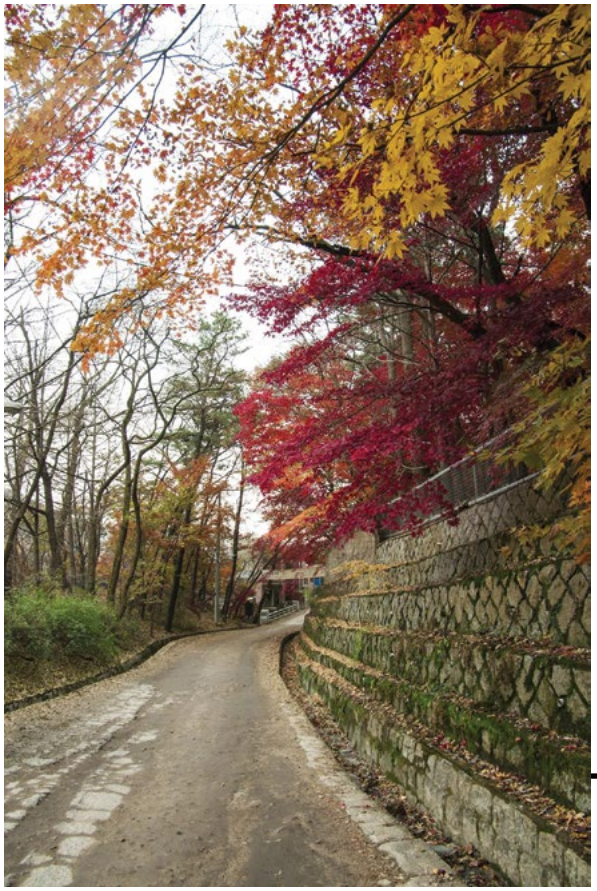
2019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김혜정 공연 수석부회장/JKCC 어린이 합창단
정재익 전시부회장/ 서협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박준희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 김종규	0815 1059 8392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김영희	0815 181 3102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0815 1941 1756



편집 후기

편집장 홍석영

내가 사는 곳을 좋아하려면
추억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더운 날씨를 핑계로 차에서 내려 걸을 생각을 잘 안하는 탓에 어떤 길도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저 지나만 다닙니다.

이곳에 사는 아쉬움은 '걸을 만한 길이 없다' 인 채로 오늘도 대부분의 시간이 실내에 머뭅니다.

길을 천천히 걷는 것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조차도
이전의 경험과 다르게 하려들면 힘이 듭니다.

저 혼자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익숙한 선택을 하다 보니 항상 변화가 멉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9. 4. 29.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고문	김 갑 수	0811-394-552
		총무	손 민 석	0858- 5732-0669
2	반둥한인회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윤 재 웅	0813-1921-5720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뜬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13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www.samtan.co.kr

SAMTAN

GLOBAL LEADING COMPANY
IN RESOURCE & ENERGY